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28호

Thursday, April 9 2026 A

## 불안한 2주 휴전, 호르무즈 일단 열린다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공격 중단 미국도 이란도 서로 "이겼다" 자평  
내일 중재국 파키스탄서 담판 돌입

마주 보고 달리던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 직전 핸들을 꺾었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못 박은 협상 데드라인을 1시간 30분가량 앞두고 '2주 휴전안'을 전격 수용하면서다. 곧이어 이란도 휴전에 동의했다. 2월 28일 개전 이후 39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8시로 정한 협상 최종 시한을 88분 앞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2주간 이란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임을 강조했다. 이란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우리군은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양국간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가 이날 오후 트



**휴전 소식에 거리로 나온 이란인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소식이 알려진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거리에 시민들이 나와 국기를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한다며, 이란도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기한의 2주 연장을 요청하고 동시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해협의 2주간 개방을 요구했는데,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양국은 10일 중재국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담판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 절멸론'을 거론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

던 중동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2주로 정해둔 협상의 시간에서 핵심 쟁점마다 양측 입

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이 설정한 전쟁 목표는 이란 핵의 완전한 폐기와 신정 체제의 변화였다. 하지만 이란 이스파한에 은닉된 약 450kg의 중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이번 휴전안을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하메네이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핵 체제의 정당성을 미국이 인정할 꼴이다.

이란 또한 피해가 막대하다. 체제는 유지됐지만 개전 첫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관 등 정권 수뇌부가 대거 사망했다.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주요 정유시설·발전소·교량 등 국가 기간시설도 대거 파괴됐다. 복구-재건에만 천문학적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관측이다.

그럼에도 양측은 각각 전쟁 승리를 외쳤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AF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100%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라고 했다.

위싱턴=김형구 기자

## AI와 민간 DB 엮어...불체자 '현미경' 추적

이민 당국이 인공지능(AI)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추적을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빠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공항 보안 정보까지 활용되면서 단속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자 권익 단체 아메리칸 이민그레이션 카운슬이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AI와 민간 업체를 활용한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방식 단속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매달 수만 명의 대상자 정보를 민간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공개 기록과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등을 분석해 거주지와 직장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

소 등 개인정보가 활용되며 일부 업체는 거주지 확인과 직장 파악, 사진 촬영 등 현장 조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정보는 ICE 단속 작전에 활용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서비스 도입을 위해 13개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군사·정보 분야 출신으로, AI 기반 대

규모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개인 위치 추적 업무를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업체들이 한 달에 최대 5만 건의 대상자 정보를 전달받아서 개인의 소재를 1~2주 안에 확인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ICE 내부 문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향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

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등 AI 기술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잘못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주소가 옮긴 불법체류자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오인식이나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잘못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책임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ORNERSTONE FINANCIAL**  
코너스톤 종합보험

## 보험 청구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보험료는 자꾸 오를까요?

매년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되세요? 보험료 상승 원인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료 상승 원인

**전체 사고 비용 증가**

- 자동차 수리비, 의료비,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도 변화**

-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거주 지역의 사고율·도난·자연재해 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보험사 전체 손해율 상승**

- 보험은 '공동 위험'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손실도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 갱신 전, 내 보장 항목 점검
- 필요 없는 보장이나 중복 보장 정리
- 자기부담금 조정 및 보험사별 조건 비교

INSURANCE  
\$850  
\$945  
\$1,120  
\$1,295

오향제 Joshua Oh

오은정 Jenny Oh

**Annandale Office**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703-642-0305**

**Centreville Office**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703-775-2304**

**Ellicott City Office**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410-216-1552**

# 호르무즈에 발목인 2190척, 2주간 다 못뻐다

원유·석유제품 운반선 등 26척 억류 호르무즈 일 최대 120척 통과 가능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던 상선들의 탈출 작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상선은 약 2190척이다.

이 중 정부가 파악한 억류 중인 한국 국적선은 총 26척으로 ▶원유 및 석유 제품 운반선 17척 ▶벌크선 5척 ▶컨테이너운반선 1척 ▶가스운반선 2척 ▶자동차운반선 1척이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서 확인된 통항 관련 정보,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선박의 통항과 관련해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 계획을 수립해 운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선 통항이 재개되면 해협 안쪽에 억류된 선박을 먼저 밖으로 내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입택규 한국국제



물류협회 상무는 “해협 안쪽에서 대기 중인 ‘외향 선박’들은 인근 국가들이 모두 전쟁 사정권 안에 있어 물자를 지급받지 못한 지 한참 됐다. 이들을 인도 양으로 빼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주라는 제한된 기간에 얼마

나 많은 배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접해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시작점 폭이 약 50km,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3km 정도다. 대륙에 인접해 있어 수심이 얇은 지역을 제외하고 양방향 노선을 구분한

다면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폭은 3~10km 정도다. 평시에는 하루 100~120척 정도가 지나간다. 2190척이 하루에 120척씩 해협을 빠져나간다고 단순 계산해도 18일이 걸린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기 선박을 순차적으로 빼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출항 일정은 (이란의) 기뢰 부설 여부, 화물 종류와 국적·운항사별 우선권, 선박의 재운항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6척의 국적 선사가 아닌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선사 이용 비중은 60~70%에 달한다. 국적선은 정부의 협조 아래 탈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외국 선사에 짐을 실은 기업들은 해당 선사의 결정과 소속 국가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물류기업 이로지스의 권혁진 지점장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가던 컨테이너 144개가 해외 선사 선박에 실린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수출 물류업체 관계자는 “중등으로 갈 우리 중고차 800대도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운철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통항료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우림 기자

## VA 병원, 의료비 채무소송 115만건 제기

버지니아 종합병원들이 지난 15년간 환자들을 상대로 100만건이 넘는 의료비 채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워싱턴대와 스탠퍼드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버지니아 내 116개 종합병원은 2010년 이후 모두 115만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청구 금액은 14억 달러에 달했다. 소송 1건당 평균 청구 금액은 1,220달러였다.

법원은 이 가운데 40만3천건에 대해 환자 임금과 은행계좌 압류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수수료 약 4,590만달러, 변호사 비용 8,710만달러가 추가로 발생해 환자 부

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비영리 병원이 전체 의료비 채무 소송의 52.7%를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영리 병원은 지역 사회 기여를 조건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환자에게까지 공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서 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비영리 의료기관인 센타라 헬스로, 15년간 9만6천건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북버지니아의 이노바 헬스 시스템은 2019년까지만 해도 소송 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20년 이후 신규 소송

을 중단했다.

이는 2019년 이노바와 UVA, VCU 등 일부 비영리 병원들이 저소득층 환자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과 임금 압류를 진행해온 사실이 알려진 뒤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후 이노바 헬스 시스템은 강제 징수 대신 의료비 감면 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연구진은 환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고, 청구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추심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이런 대규모 분쟁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윤미 기자

## 문인석 총영사, 재향군인회 초청 오찬 간담회



문인석 워싱턴총영사가 7일 오후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김인철 회장 등 임원진 7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총영사는 “그동안 해온 것 처럼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가 한미발전과 동포사회 융화와 단결, 그리고 안보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 회장은 단체의 활동과 목적에 대해 소개하며 총영사관의 관심을 부탁했다. 김성한 기자

## 백악관 “이란과 첫 협상 11일 파키스탄서…부통령 등 파견”

미국과 이란의 첫번째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워트 코프 특사, (판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애초 휴전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을 다시 차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비

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다시 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대와 요구를 다시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날씨 (°F)**

10일(금)	76-57	☀️	13일(월)	84-64	☁️
11일(토)	74-48	☁️	14일(화)	90-69	☁️
12일(일)	68-56	☁️	15일(수)	94-70	☁️

4월 9일(목) 63-4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박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가치적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AI 위협 심각...버지니아 150만개 일자리 영향

## 신입 사원 채용 AI로 대체 전문·일반직도 위협 상태

인공지능(AI)이 워싱턴일원 고용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위협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컴퓨터사이언스 전공자들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는 물론 고객 서비스 담당자, 소매 판매원 등을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근로자와 대학 졸업생들은 이미 암울하고 경직된 고용 시장에 직면해 있는 데, AI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6일 나왔다.

버지니아 상공회의소가 작년 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주 전체에 걸쳐 AI로 인해 150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영향의 의미는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자동화되거나 재편되는 것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관련 직위가 줄어들 수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도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북버지니아 지역은 가능성과 위험 모두에서 매우 높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최대 39%의 일자리 약 54만3600개가 AI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중 21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 일



자리 16만900개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버지니아 중에서도 AI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알링턴, 맥클린, 타이슨스 코너, 레스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그레이터 워싱턴 파트너십이 지난 달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이르는 지역의 기술 노동 시장을 조사했는데,

AI가 이미 신입 사원 직무를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기술 관련 구인 공고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금융 관리자, 데이터 과학자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직종에서 45-54% 줄었다. 고위직은 감소폭은 4-28%에 불과했다.

한편, AI는 아직 일자리를 많이 없애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형태, 채용 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어서 한인들의 대책 마련과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한 기자

## 전쟁 멈추자 워싱턴 한인사회 '안도의 한숨'

### '호르무즈 해협' 이 뇌관의 중심축 일단 전략적 멈춤...향후 예측 불가

지난 39일간 지속되어 온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일단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주류사회는 물론 워싱턴 한인사회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꼬여있는 세계 경제와 정유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도 조급스럽게 모색되자 석유로 인한 물가상승, 경제활동 저하로 공포 얼어붙어 있던 한인 경제에 숨통이 트이면서 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7일 전격 합의한 '2주 휴전'은 전면전 위기를 피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평화로 해석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즉 '전략적 숨고르기'로 보된다.

막다른 벼랑끝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제안한 '2주 휴전+해협 개방' 카드였고, 여기에 중국의 물밑 설득이 한 몫을 했다고 봐야한다.

일차 위협에서 벗어난 미국과 이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모흐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의 다음 단계는 10일부터 이슬라라마드에서 열릴 협상인 데 이는 '힘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고강도 줄타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누가 뭐라하든 이번 합의의 핵심은 단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 곳은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로, 봉쇄 여부가 바로 글로벌 경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이란은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한 자유 항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 쟁점의 우선 순위다.

또 다른 협상의 뇌관은 이란의 제안한 '10개 종전안'인데, 주요 항목에는 ▲미군 철수 ▲우라늄 농축 허용 ▲

제재 완화 ▲전쟁 배상 등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해법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히 핵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을 전쟁의 끝이 아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평가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로 ▲종전 합의 도출 ▲장기 휴전 전환 ▲군사 충돌 재개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개속이다.

다시 말해 핵 문제, 해협 통제, 군사 영향력이라는 주요 사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오후 늦게 전쟁 휴전 소식이 날아들자 워싱턴 한인사회는 "미국과 이란은 평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남은 협상이 잘 이루어져 휴전에서 종전으로 가기를 소망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사는 김모씨(65)는 "조마조마하던 전쟁이 휴전과 종전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석유값이 내려가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 버지니아 '뉴스사막화' 현상 빠르게 확산

### 로컬 매체 없는 카운티 16곳 급증

버지니아에서 지역 소식을 전하는 로컬 뉴스 매체가 사라진 뉴스사막(News Desert)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웨스턴대 메릴 저널리즘스쿨의 '2025 지역 뉴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 로컬 뉴스 매체가 전혀 없는 카운티는 2023년 7곳에서 2025년 16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 8개 카운티는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 매체마저 잃을 위험이 큰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뉴스 매체가 늘고 있는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릴 측은 디지털 전용 로컬 뉴스 사이트의 90% 이상이 도시권에 몰려 있다고 분석했다.

버지니아의 지역 언론 기반도 계속 약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버지니아의 전체 로컬 뉴스 매체는 156개이며, 이 가운데 101개가 신문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버지니아에서는 독립 지역신문 6곳이 폐간 또는 통합되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64개 지역은 사실상 단 하나의 로컬 뉴스 매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독립 언론의 붕괴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키운다.

엑시모스 리치먼드는 대형 체인보다 소규모 독립 신문들의 폐간과 통합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33년 전통의 주간지 타임스-버지니아는 경영난 끝에 2025년 2월 마지막 호를 내고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뉴스사막 확대가 단순한 언론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메릴 보고서는 신뢰할 만한 지역 뉴스에 대한 접근이 줄면 주민들이 공동체 현안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정보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들도 지역 언론 약화가 낮은 투표 참여, 정치적 양극화, 부패 감시 약화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인원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웃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가(대사) 명칭과 교수자격 사서  
- 서울중의대학 중의과대학사  
- 임상 25년 경험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linic/

# 제 5회 조은축구회 축구대회

## 워싱턴 대한 축구협회 산하 소속팀

**특별 후원** 센터빌 아바이 순대 703-815-8588

협회 산하 임원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일시** 2026년 4월 26일 (일) 오전 8시  
**장소** Stringfellow Park 13112 Autumn Willow Dr. Fairfax, VA 22030  
**시상** OB팀 ◆우승: 트로피/ 축구공 ◆준우승: 축구공  
YB팀 ◆우승: 트로피/ 축구공 ◆준우승: 축구공  
매너상: 축구공

**2026 월드컵 공동응원전**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김덕만 워싱턴 대한 축구협회 회장: 박희춘

**대표자 회의 월드컵응원전 발대식**  
일시: 4월 18일(토) 오후 6시  
장소: 장원반점 703-354-1950

**워싱턴 대한 축구협회 임원진**

- 회장: 박희춘, 인교, 이완근, 홍성용
- 이사장: 신익훈
- 부회장: 장기원, 이상준
- 사무총장: 최원선
- 재무: 이상오
- 심판위원장: 광 용
- 기획홍보: 정영호
- 진행위원: 허기원, 이대형
- 고문: 한성호, 김 홍, 이 검, 유응덕, 우태창, 정우석, 주영진, 최용섭, 윤희균, 박성근, 김유한, 박희춘, 손태성, 이응천, 광 용, 신익훈, 허용익, 이현준, 대니엘 박

**조은축구회 (회장 박희춘)** 703-947-7733 홈구장: 센터빌

**MD 청룡 (회장 홍성용)** 301-943-7785 홈구장: 락빌

**화랑 (회장 김효준)** 571-224-8638 홈구장: 버크

**우리FC (회장 이완근)** 703-801-0103

\* 함께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각 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워싱턴 대한 축구협회 회장 박희춘 • 주최: 조은 조기축구회 회장 박희춘 • 대회장: 장기원

# 주지사 후보들, 잇따라 한인타운 온다

오는 9일 톰 스타이어 첫 방문 포럼, 기자회견 등 수차례 예정 한인 사회 정책 요구 전달 기회



톰 스타이어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베티

가주 주지사 예비선거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잇따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가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9일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주최하는 주지사 후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후보들의 한인타운 일정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후보 중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는 역망전자 톰 스타이어 후보가 참석한다.

스타이어는 1986년 헤지펀드 사파 랄론 캐피탈을 창업했으며, 현재 운용 자산은 약 4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는 2012년 회사를 떠난 뒤 기후운동 비영리단체이자 정치후원위원회인 넥스트젠 아메리카를 설립해 환경 보호와 민주당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한인회는 스타이어 후보를 시작으로 2~3차례 추가 후보 초청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로버트 안 회장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주 최고위직인 주지사 후보가 한인 사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주지사뿐 아니라 연방 상·하원, 나아가 대통령 후보까지 한인타운 방문을 하나의 필수 코스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후보 방문 시 한인 사회의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아태계 비영리 단체들이 연합해 한인타운에서 주지사 후보 초청 포럼을 개최한다.

민주당한인협회(KADC)와 아시아인 아메리칸유나이티드센터(CAUSE)를 포함한 4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인 운영 신학교인 웰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아태계 유권자를 위한 공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현재까지 참석이 확정된 후보는 톰 스타이어,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 베티 이가주 회계감사관이다. 주최 측은 모든 출마 선인 후보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추가 참석자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포럼 참석 신청은 온라인 링크(<http://bit.ly/aanhpi-cagubernatorial-2026>)를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최근 가주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 논설가 스티브 힐튼(공화)과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국장 이 각각 39%와 32%로 지지율 1, 2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민주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포터 전 하원의원은 19%, 스왈웰 하원의원은 18%, 스타이어는 14%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 “미성년자에 술 팔면 벌금 폭탄”

7일 주류 판매자 교육 세미나 법원 부과금 180%까지 추가 위반시 실제 부담 약 2800불 위장·함정 단속으로도 적발



LA에서 가족 단위 스포츠 관람 비용이 이제 1000달러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손흥민(LAFC), 오타니 쇼헤이·야마모토 요시노부(LA 다저스), 르브론 제임스·루카 돈치치(LA 레이커스), 매튜 스타포드(LA 램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슈퍼스타들이 한 도시에 모여 있지만, 정작 이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즐기기 위한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LA 다저스 소식을 전하는 ‘다저스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시즌 다저스의 티켓 평균 가격은 181달러다.

반면 ‘다저스의 목소리’로 불렸던 스포츠 캐스터 빈 스킨리가 은퇴했던 2016년 시즌 티켓 평균 가격은 31달러90센트였다. 불과 10년 만에 티켓 가격이 약 500%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최근 메이저리그(MLB)가 시즌을 개막하며 다저스의 3연패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프로농구(NBA)의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LAFC의 손흥민까지 BMO 스타디움을 누비면서 LA의 스포츠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본지는 LA 지역 주요 프로 구단들의 티켓 가격과 팬들의 현실적인 지출 비용 등을 조사해 실제 스포츠 관람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봤다.

송운서 기자

## 데이비드 강 교수 성폭행 소송 합의

교직원 신분 종료, 2건 진행중

건과 보상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김병수 USC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날 예정돼 있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데이비드 강(61·한국명 강찬웅·사진) 전 USC 국제관계학과 교수에게 제기된 성폭행 소송 3건 중 1건이 약 2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USC 측은 “양측이 해결책을 찾게 돼 기쁘다”면서도 “강 교수는 지난달 19일부로 더는 USC 교직원이지 않다”고 밝혔다.

USC 교내 언론 ‘모닝 트로잔’은 USC와 강 교수 측이 박사과정 제자였던 피해자 김규리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바버라 마이어스 판사에게 피고 측과 ‘무조건적 합의(conditional accord)’에 도달했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합의 조

는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USC 웹사이트에는 강 교수의 사진과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강 교수에 대한 법적 소송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성폭행·성희롱 관련 소송 2건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USC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학생 이나영씨가 유사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운서 기자

## 한국문학, LA 독자들 만나다

LA문화원 15~19일 강연 도서축제 참가 부스 운영

문화원과 번역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한국문학: 사랑과 미래의 언어’ 강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18~19일에는 LA 타임스 도서축제에 참가해 한국문학 도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소설가 박상영, 천선란, 시인 이민하를 비롯해 한인 작가 크리스탈 하나 김, 제니퍼 권 돕스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장르와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독자와 교류할 예정이다.

강연은 15일 LA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17일에는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에서 작가 전원이 참여하는 대담이 열리며 현지 대학생과 주민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 LA 한인타운 피오 피오 도서관에서는 시 강연이 진행되며, 일부 강연에서는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뮤지컬 상영도 함께 이뤄져 한국문학의 확장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이틀간 열리는 도서추

제에서는 한국문학 도서 전시와 함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도서 판매, 작가사인회 등이 진행된다.

문화원 측은 “한국문학을 매개로 한국과 미국 독자가 직접 교류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학의 현지 확산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323) 936-3012

김경준 기자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 승경호 부동산

---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 CAR WASH

찾아드리고 팔아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

수입 꾸준한 사업체 매물 있습니다

1백만불 에서 3백만불

NEW HOME

Fairlakes, VA

Reston, VA

Ellicott City, MD

Falls Church, VA

Ashburn, VA

Bethesda, MD

---

사무실, 병원, 창고, 공장 / 랜드 / 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새집 구입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봐드립니다.

구입전 꼭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새로 집 지으실 분 건축업체 및 시공업체 소개해드립니다.

**인제, 어디서든**  
만나서 민심팅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수나이다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 승경호

---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 SD카운티 푸드스탬프 중단 비상

##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 예상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된 연방법으로 인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 약 1만 3000여명이 '칼프레시(CalFresh-연방 푸드 스탬프)'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해당되는 주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푸드뱅크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특정 비시민권자 그룹에 대한 수혜 자격 제한이다. 망명 신청자(asylees), 난민(refugees), 가석방 입국자(parolees) 그리고 추방 유예 대상자들이 주요 영향권에 포함된다.

특히 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보조금 의존도가 큰 샌이스드로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긴장하고 있다. 샌이스드로에 소재한 '리



푸드 스탬프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EBT 카드. [카운티뉴스센터 캡처]

바마켓(Liva Market)의 아렐리 아구에로는 "우리 가게 고객의 약 50%가 EBT(전자 혜택 이체) 카드로 식료품을 구매한다"며 "수혜자가 줄어들면 단골 고객을 잃게 되고 이는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혜택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푸드뱅크에는 벌써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발길이 줄어 있다. 이미 해

택이 중단되어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는 아나 로사 알렌 라미레스는 "과거 200명 정도였던 배급 대기인원이 최근 500명까지 불어났다"며 현장의 절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카운티 당국은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수혜 대상자들에게 연락처와 이민신분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신분이 변경된 경우 여전히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카운티에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식료품 지원이 시급하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주민은 2-1-1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카운티 측은 대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1-1 지원 센터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 재외동포 아동 일기 공모전

본선 진출 20명, 한국 초청 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한국 교육부가 2026년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공모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9회를 맞았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0개국에서 약 2300명이 참가했으며, 2024년에도 56개국 21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꾸준한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작품 접수는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5월 30일 1차 예선 통과자

100명을 발표한다. 이후 원본 작품 제출과 영상 인터뷰를 거쳐 7월 22일 까지 본선 진출자 약 20명을 최종 선 발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참가 어린이와 보호자 1명을 초청해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며, 현지에서 전시회와 시상식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부총리)상이 수여되며, 이외에도 국회 교육위원장상과 국제한국어교육재단상 등 총 19명 내외의 수상이 선정된다.

대회 신청과 접수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ikfekid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 중고차 가격 3년래 최고

도매 경매가 지수 6.2% 급등 신차 부담에 수요 몰린 영향 재고 일수도 올해 최저 수준

중고차 가격이 공급 부족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자동차 분석업체 폭스오토모티브가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매 경매에서 거래된 중고차 가격을 반영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는 지난달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 2023년 여름 시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만 달러에 육박한 신차 가격에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기준 중고차 평균 판매가는 2만5287달러로, 신차 평균 가격(약 4만 9100달러)과 비교해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스오토모티브는 "신차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중고차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트레이드인 물량이 줄어 중고차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고차 수요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높은 유가,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오토모티브의 제러미 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갈등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재고는 타이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의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재고 일수는 지난달 기준 40일 아래로 떨어지며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낮은 수치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올해 중고차 시장 전망도 소폭 상향 조정됐다. 폭스오토모티브는 올해 중고차 판매량 전망치를 기존 2030만 대에서 2040만 대로 상향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판매가 다소 둔화하면서 연간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약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훈식 기자

# 우정국 뇌물 수수 한인 포함 4명 징역형

연방우정국(USPS) 계약을 둘러싼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한인을 포함한 4명이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텍사스 북부지검은 USPS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 4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7일 밝혔다.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의 캐런 그린 솔러 판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형량 선고 공판에서 제커라이어 이(52)에게 징역 42개월, 노태령(51)씨 30개월, 윤완진(51)씨 24개월, 윤홍진(48)씨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차량 2대와 현금 30만 달러 이상을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앞서 USPS 한인 직원 노태령씨와 전직 시니어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제커라이어 이씨는 트럭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트럭 업체들이 USPS 운송 계약을 따내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트럭 운송 회사를 운영하던 윤완진씨와 윤홍진씨 등은 USPS 측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강한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주 등)  
웨이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주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 동남아·남아시아, 중동 전쟁에 농사 타격...식량위기 우려

중동산 석유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남아시아 각국의 농민들이 석유·비료 공급 차질로 농사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식량 위기 우려가 번지고 있다.

농작물 수확철인 곳에서는 농기계 연료비·수송 비용 급등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파종철을 앞둔 곳은 비료 부족에 파종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 벵게트주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로메오 와가얀(57)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확·소송 비용 급증으로 수확철이 된 채소를 밭에서 썩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와가얀은 “수확을 하면 노동·운송·포장 비용 때문에 손해만 더 커질 뿐이다. 아무런 돈도 벌지 못한다. 그래서 아예 수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지난달 경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60%, 휘발유는 27% 각각 뛰어들었다.

다른 채소 농사꾼 아널드 카핀(27)은 “경유 가격 상승은 파종과 수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배송비 때문에 농산물을 팔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또는 아예 없다고 전했다. 태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태국 중부 아유타야주의 농민 타나뎃 프라이웃은 양수기와 농기계 가동에 꼭 필요한 경유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2명만 남았을 때 연료가 다 떨어졌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는 닷새 동안 평소처럼 연료를 구하지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타나뎃은 “작물을 가꾸고 벼농사를 위해 물을 퍼 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다”면서 “밭에서 작물이 썩어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100일 치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태국 정부의 입장에도 전국의 많은 주유소에는 석유를 사려는 긴 줄과 함께 ‘품질’ 표시가 보인다.

태국 농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농민들이 다음 파종을 위해 비료를 사기 시작하는 한 달 후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만약 5월에도 전쟁이 계속되면 가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중동에



필리핀 주유소의 '경유 품질' 표시

서 주로 생산되는 요소비료 등 질소비료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인도는 연간 6천만 t 이상의 비료를 소비,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비료 소비국으로 인도 농업은 중동산 화학비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인도 내 요소비료 소비량은 연간 약 3천500만~4천만 t에 달하지만, 전쟁으로 인도의 요소비료 생산 공장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양은 약 30% 급

감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곡창지대로 꼽히는 북부 편자브주·하리아나주 농민들은 오는 6~7월 쌀과 면화 등 작물 파종을 앞두고 비료 구매철인 5월이 다가오자 공황 상태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편자브주 한 시골 마을에서 밀과 쌀을 번갈아 재배하는 구르빈더 싱(52)은 “비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수익을 내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싱은 “우리는 농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자브주의 다른 농민 테즈비어 싱도 “주변 농부들이 공포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비료를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면서 비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다른 동남아·남아시아 국가들도 식량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수확량 기준 올해 식량 생산 비용이 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과 경제 혼란으로 이미 인구의 약 4분의 1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도적 위기가 한층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각국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6월까지 이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 경우 세계 약 4천500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기아에 처할 수 있다고 WFP는 추산했다.

## 달 지평선 너머로 가는 지구

6일 오후 6시 41분(동부시간),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이 달을 근접 비행하던 중 오르는 우주선 창문을 통해 촬영한 '지구셋'(Earthset) 모습. 열은 푸른빛의 지구가 밝은 흰 구름과 함께 크레이터로 뒤덮인 달 표면 뒤로 지고 있다. 지구의 어두운 부분은 밤에 해당하며, 낮인 지역에서는 호주와 오세아니아 상공에 소용돌이치는 구름이 관측된다.



## 유엔 특사, 중동 평화 중재 행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중동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임명된 장 아르노 특사가 이란에 도착했다고 유엔이 8일 밝혔다.

유엔은 이날 성명에서 구테흐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아르노 특사가 중동 분쟁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 모색을 지원하고자 역내 순방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아르노 특사는 일시 휴전을 포함해 파키스탄 등이 중재한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 이란 측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구테흐스 총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유엔은 “아르노 특사는 모든 지도자가 유엔 헌장 및 국제 인도법에 따라 분쟁의 지속보다 평화적 해결과 민간인 보호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 “모즈타바, 의식 불명 이란 통치 불가 상태”

### 더타임스, 외교 문건 인용 보도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사진)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 전면 타격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서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7일 모즈타바가 심각하게 다쳐 이란을 통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모즈타바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숨진 뒤 새로운 최고지도자

로 선출됐다.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가벼운 부상부터 얼굴 부상, 러시아 치료, 중상, 심지어 사망까지 각종 설이 나왔다.

더타임스는 ‘미국·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걸프 지역 동맹국과 공유한 기밀 외교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현재 의식 불명(unconscious) 상태로 이란의 종교 성지 콰(Qom)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



가 중대사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모즈타바는 첫 공습 이후 공개석상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은 국영 매체를 통해 성명 또는 전언의 형식으로 모즈타바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모즈타바 명의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세예드 파지드 카데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보국장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김기환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i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irlawpllc.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PR. 9th - APR. 16th, 2026



**Frozen Seasoned Pollock Roe**  
**백명란젓 2.2 LB**

**\$19.99**

인공색소  
無첨가



LIMIT 4



**Ppushu Ppushu Noodle Snack Variety Pack**  
**부셔부셔 버라이어티팩**

**\$7.99**

LIMIT 4

3.17 OZ X 10 EA/PAC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민간 포스코도 하청노조들과 따로 교섭한다

**민간기업 분리교섭 허용 후폭풍**  
하청노조 교섭 요구 985개 쏟아져  
노사 합의 실패로 279건 사건 접수  
사용자성 판단 현재까지 모두 인용  
“임금·근로개선 등 갈등 확대될 것”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정부는 대화를 주문했지만 노사 현장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1000건에 가까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만 279건에 달한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용했다. 앞으로 교섭단위가 여러 갈래로 쪼개질 경우 원청 사용자가 우려해온 ‘연중 내내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실질적으로 노조법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토대로 민간 기업의 원청 사용자성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요구를 인정 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원청노조에 더해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대상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7개 하청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을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 그 외 노조 등 상급단체별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시행령을 재개정해 교섭단위 분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내용이다. 포스코처럼 교섭단위가 잇따라 쪼개져 개별교섭으로 갈 경우 기업들이 우려해온 1년 내내 교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조합 상호 간 반목’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등을 고려했는데, 이런 노사 협의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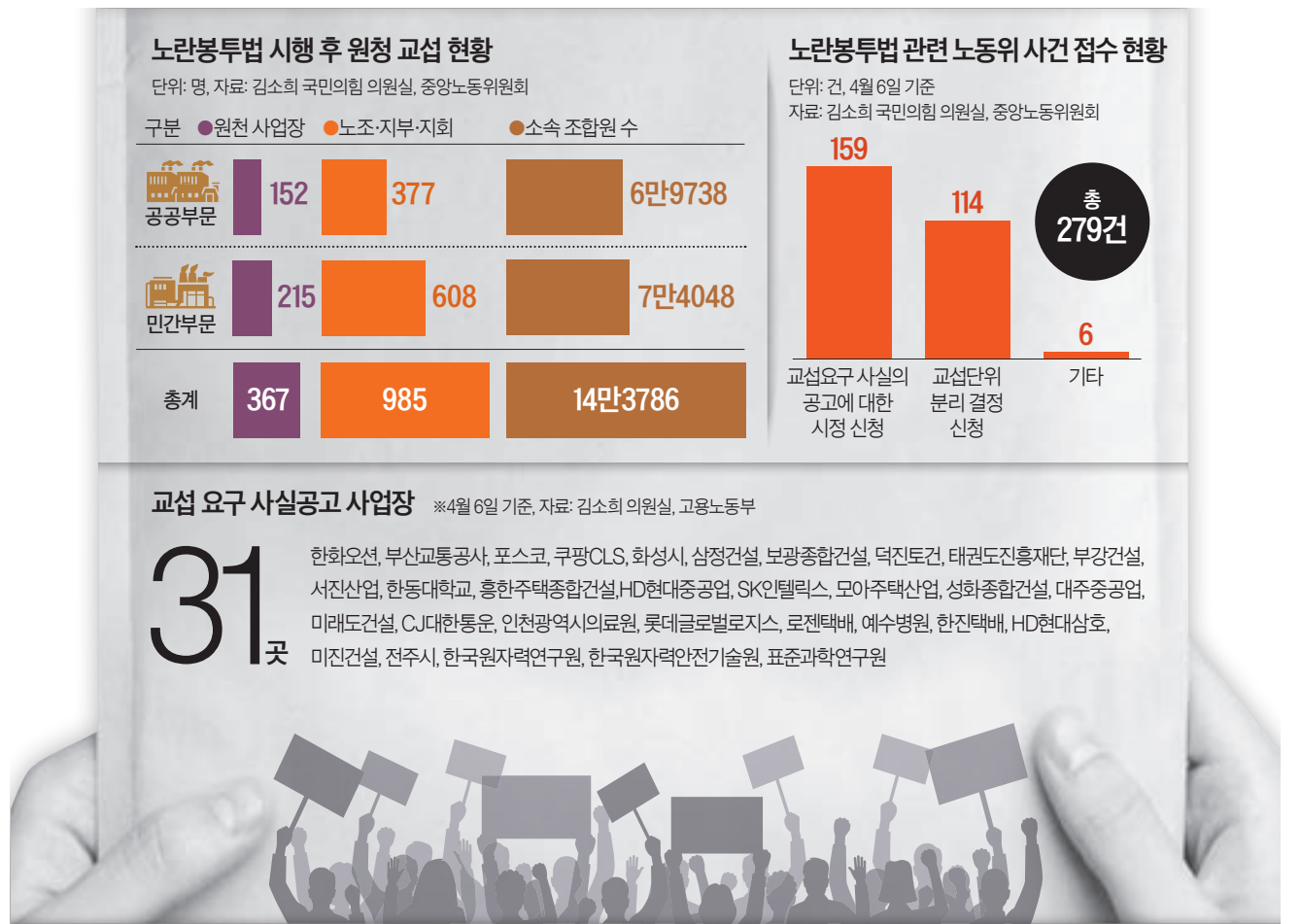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장은 “교섭단위 분리는 원래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안이었었는데 노동부가 이를 광범위하게 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현장은 대화보다 분쟁 국면으로 빠르게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 이후 이달 6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79건으로, 이 중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114건에 이른다.

6일 기준 985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며 전체 건수는 1000건에 육박했다. 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31곳에 그쳤다. 노조와 사용자 간의 의견 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결국 대다수 사안이 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이날 포스코 사례뿐 아니라, 지난 7일에도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각각 한국공항공사·인덕학원(인덕대)·성공회대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공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모두 인정됐다.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법을 자문을 구하거나 노동위원회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아메바 분쟁’이라고 진단했다. 하청노조와 사실상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교섭이 열릴 때마다 의제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등을 다시 다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교수는 “안전처럼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쉬운 의제로 교섭을 시작하겠지만, 결국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사내 하청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는 협력사 50여 개, 직원 1만명가량이 있다. 포스코는 이중 철강 생산을 직접 지원하자는 업무를 하는 약 7000명만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을 일단락하겠다는 취지지만 직고용 범위·처우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됐다.

직고용을 할 때 임금 수준과 체계를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포스코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주된 이유도 정규직 대비 낮은 처우였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체계를 갖출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미 자회사로 소속을 바꾼 직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파견 논란에 포스코는 2023년 기준 26개 정비협력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정비 전문 자회사 6개를 출범시켰다.

당시 협력사 직원과 외부 정비 경력직 공개 채용 등을 포함해 4500명가량이 자회사 직원이 됐는데, 이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김연주·이수정 기자

## 포괄임금=공짜 노동 관행 막는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덜 주면 위반

**고용노동부, 오늘부터 지침 시행**  
경영계 “현장 혼란·법적 분쟁 우려”

앞으로 노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초과근로수당(OT) 약정을 맺었더라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

정 수당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자 현장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미리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정보기술(IT)·플랫폼 업종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고 힘을 실었다.

지침에 따르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정액급제·정액수당제를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정OT(초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에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부가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 이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전산 시스템 활용 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경희 기자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p><b>1. 찬들리 하이 싱글</b> \$1,299,000</p> <p>Coming Soon</p> <p>방4, 화3.5, 차고2, 큰역, 락키엄 미들, 포틀라트리 초 (최고 학군)</p>	<p><b>4. 스틸링 타운</b> SOLD \$645,000</p> <p>2014년, 방3, 화2.5, 차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p>	<p><b>7. 애쉬번 뉴타운 55+</b> SOLD \$790,000</p> <p>방3, 화3.5, 차고2, Elevator</p>
<p><b>2. 현둔</b> \$590,000</p> <p>Coming Soon</p> <p>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p>	<p><b>5. 케인스빌 골프 싱글</b> SOLD \$1,060,000</p> <p>케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b>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b> \$1,699,000</p> <p>SOLD / CASH</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문로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b>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b> \$390,000</p> <p>Coming Soon</p> <p>방2, 화2, 풀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p>	<p><b>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b></p> <p>Sold</p> <p>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매니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p>	<p><b>9. 알디 싱글</b> SOLD \$869,000</p> <p>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채마루, 국전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p>

##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쿠쿠 4월 SPRING 특별 SALE

기간: 3.28.2026 - 4.28.2026 조건: 기간내 주문 & 4월 내 설치

렌탈가 월 **\$19.99** 부터  
+ 최대 6개월 FREE



## 전 구매고객 대상 특별 사은품 증정

<p><b>POWERCLONE</b> 무선 진공 청소기</p>  <p>FREE GIFT</p>	OR	<p>논스틱 세라믹 코팅 후라이팬</p>  <p>FREE GIFT</p>	OR	<p><b>ONE-TOUCH</b> 개인용 블렌더</p>  <p>FREE GIFT</p>	OR	<p>내열유리 밀폐용기 세트</p>  <p>FREE GIFT</p>
---	----	---	----	--	----	--

\* 구매 제품별 사은품 상이함

###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 **힐링마을 Ellicott City** Tel. 443-878-9010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 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일반 제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RENTAL.COM | 888.700.0425

CUCKOO

# 차량 2부제 첫날... “짝수 차 번호판, 홀수로 다시 받았어요”

(구형)

공공기관 대상 시행, 곳곳서 혼선 “맞벌이, 아이 등·하교 위해 차 필요” 방과후 강사 “일 그만둬야할 판” 5부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혼돈 지하철 환승 신도림역엔 인파 몰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작된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에 안내판이 붙어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8일, 서울 도심 곳곳 출근길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번호판 끝 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 날,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과 공공청사 출입이 가능해졌다.

오전 8시, 서울 1·2·5호선 환승 거점인 구로구 신도림역 안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곳곳에 배치된 질서 안전요원이 밀려드는 인파를 통제했다. 경기 김포시 집에서 출발해 서울 종로구 일터로 출근하던 문모(31)씨는 “평소 차로 1시간 걸려 출근하는데 오늘은 2부제 때문에 지하철을 타니 1시간 30분쯤 걸렸다”며 “집에서 더 일찍 나와야 해 피곤하지만 별수 있나”라고 했다.

격일로 발이 묶이게 된 시민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교사 김모(43)·유모(43)씨 부부는 최근 차량 번호판을 교체했다. 차량 2대의 번호판 끝자리가 모두 짝수여서 격일로 두 대 모두 운행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초등

학생 자녀 두 명의 등·하교를 챙겨야 하는 이들 부부에게 차량 이용은 필수다. 김씨는 “구형 번호판이라 교체가 가능해 홀수 번호로 바꿨다”며 “2부제가 시행되면 우리 같은 맞벌이 가정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 ‘카풀(carpool)’ 모임을 꾸리는 모습도 보였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2부제를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만큼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수산안전요원은 “퇴근길에 학원을 마친 아이를 픽업해야 하는데 2부제 시행으로 어렵게 됐다”며 “전기차를 사거나 일을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는 교구와 자료를 직접 가지고 여러 학교를 돌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필수인데, 차량 2부제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업을 걱정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열고 방과후강사 차량 2부제 제의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됐지만 공공기관별로 규정을 제각각 적용해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 송파구청에선 끝 번호가 3·8인 차량들이 막힘 없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수요일이라 끝 번호가 3·8일 경우 공공기관에 주차할 수 없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벚꽃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구청 주차장은 5부제 시행에서 제외돼 모든 시민에게 주차장을 개방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청에서 약 3km 떨어진 강동구청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차량 끝 번호가 3이나 8인 승용차가 구청 진입을 시도하자 차단기에 ‘부제 위반 차량’이라는 문구가 뜨며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았다. 탑차를 끌고 강동구청에 방문한 오토바이 대행 판매업자 정모(45)씨는 “고객 오토바이 등록을 해주는 업무 때문에 왔는데 5부제 대상이라며 막아서니 어이없었다. 생계 때문에 온 사람도 막아서면 수요일엔 일하지 말란 뜻이냐”며 불만을 표했다.

전통시장 근처의 공영주차장도 제각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고 했지만 서대문구 영천시장 앞 공영주차장은 5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광장시장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정·곽주영·허정원·김창용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 옥외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지난달 25일 5부제 시행 당시 차량이 가득 찬 모습.

## 안규백 “GOP 병력 2만2000→6000명 축소… AI에 맡길 것”

(최전방 경계초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전초) 배치 병력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머지(1만6000명)는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 발생 시 GOP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 장관은 “해안 경비는 해경으로 인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부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1곳에 무인 감시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구 감소 따른 병역절벽 대응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선택형 모병제 도입도 추진”

안 장관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었다.

안 장관은 “현 사관학교 제도는 한계가 있어 선발, 육성 등 큰 흐름에서 합동성 등 현대전 문법을 가미하는 사관학교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강원도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대대장 대상 지휘역량 강화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다.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달 중순쯤 한국 국방연구원(KIDA)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

고 덧붙였다. 통합사관학교 부지로는 대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장관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징병제를 기본으로 입영부터 직업을 선택해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것”이라며 “기술집약형 부사관이 4~5년간 군에 있으면서 첨단 무기를 다루고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 장관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선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적이자 동족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WWW.UMNLOAN.COM

##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 혈관 속 핏덩어리, 혈전 지금부터 강력하게 관리할 때입니다!



건강한 혈관\*



원활한  
혈액순환\*

5000 FU로 혈전 용해 더욱 강화\*  
**우메켄 NEW 나토키나제**



후코이단 함유로  
시너지 효과



2배 더 강해진  
5000FU 함유



2500 FU에서 **5000FU로 2배 업그레이드!**

## 혈전 관리가 혈관 건강의 시작입니다.

혈관 속 핏덩어리인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사전 통증도 없이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 발효식품 나토에서 추출한 나토키나제는 뭉쳐있는 혈관 속 혈전을 녹여 보다 원활한 혈액 흐름을 도울수 있는 효소입니다.\*

### 나토키나제의 놀라운 혈전 용해력\*



식염수를 투여한 혈액



나토키나제를 투여한 혈액



고지혈증 환자의 모세혈관



나토키나제 섭취후 모세혈관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형진

Doctor is a paid spokesperson

응급의학 전문가가 주목하는 혈관 케어\*

## 우메켄 나토키나제



NEW

Made in JAPAN

### OTC 메디케어 카드로 우메켄 제품을 구매하세요!

클레버 케어 • 아스티바 •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 에트나 • 센트럴 헬스 플랜 • 휴마나 • LA 케어 헬스 • 몰리나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오메가 3 증정!



60포 박스 구매시  
캐나다산  
오메가 3 증정!  
4월 30일까지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박상용 “수사 얼마든 하라, 특검의 공소취소만은 막아야”

“검찰·공수처·민주당·국정원까지 공소취소 명분 위해 날 희생양삼아”

“진술 회유? 검사는 자백 받는 사람이 회유, 증거 쌓이자 자백하려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8일 “검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든 진술 회유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얼마든지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대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시적 조직인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가세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를 희생양삼

아야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을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데 이어 최근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증폭됐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이재명 씨랑 (이 전 부지사는) 공범으로 갈 거고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 같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부



박상용 검사가 8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사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인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축적된 상황에서 자백하려 했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을 막으며 변론권을 남용하고 있어 상황을 알려주고 설득하는 통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쌓이면 자백한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선처한다. 공개된 모든 녹취는 이제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 변호사는 자백하려는 이 전 부지사를 말리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이 확보한 국가정보원 문건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문건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함께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출

되지 않았다든 이 전 부지사에 유리한 자료만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70만 달러, 2020년 1월엔 중국에서 30만 달러를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쌍방울이 대납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일부라고 봤다. 이종석 원장은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조작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500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에 달한다. 2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미 1심부터 제기됐지만 반박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 대통령 사진 자제령에... 이 대통령 “이건 후보자 협박”

(취임 전 사진 선거 활용)

청와대가 요청했다는 보도 나오자 “인용된 관계자 찾아내서 문책하러 당 잘못, 청와대 넘기는 건 국정방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발송한 ‘대통령 사진·영상 사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6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청와대 요청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의 지침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의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거

론하며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정보도 요청도 지시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에서 “(공문)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 공격받자 이를 청와대 의중이라며 넘기는 것은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라고 질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보도에 인용된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나온 경위를 스스로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6·3 지

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과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갑작스런 공문에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하다”고 공문을 수정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언론이나 당 관계자에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썼다.

오현석 기자



국힘 ‘파란 현수막’ 등장 지지율에서 고전을 겪는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 빨간색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8일 부산 동천로 인근에 국민의힘 ‘파란 현수막(아래)’이 민주당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는 모습. 송봉근 객원기자

##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쏜 대표... 병원 가서 “장난치다 그랬다”

한국말 못하는 피해자 대신 말해 경찰, 가해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이주노동자의 몸에 에어건(Air gun)으로 고압 공기를 쏘 장기 파열 상해를 입힌 업체 대표가 최초 병원 진료 당시부터 한국말을 잘 못 하는 피해자 대신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 북통이 생겼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업체 대표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화성 향남읍 발안공단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규모의 금속 취급업체 운영자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오후 태국 출신 B씨(50)의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직장 손상 등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하고 있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B씨의 의무기록

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인 지난 2월 20일 오후 4시쯤 화성 만재구 소재 화성 중앙병원에 갔다.

B씨를 진찰한 의사는 “오늘 에어건으로 장난, 북통, 향문에 피가 나서 내원”이라고 썼다. B씨는 2011년 한국에 왔지만,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엔 업체 대표 A씨가 동행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2월 21일 오전 B씨가 119

구급차로 이송된 오산한국병원 진찰 기록에는 “전일(20일) 오후 3시 친구랑 장난치다가 에어건을 향문에 넣어 썼다”고 적혀 있었다.

의료진은 중환자실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록할 만큼 상태가 위중하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위중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고, 태국으로 돌아가라는 중용을 받았다는 게 B씨 측 주장이

다. 이후 A씨가 수술비를 부담하기로 한 21일 오후에서야 응급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은 에어건 등 장난이 대표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고,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표에게 더 자주 장난을 칠 만큼 서로 스스럼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성배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넬룰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격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3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avelusa.com

민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AIR PREMI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Wonderful TOUR 2026 Yearly Schedule**

04/16~04/29	(연말)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3699+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4/28~05/08	스페인&포르투갈 <b>마강인박</b>	10박 11일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4/29~05/06	정통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05/05~05/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05/19~05/31	(연말) 서유럽 7개국	12박 13일	\$3599+항공
05/21~06/03	(연말)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3699+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5/26~06/05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06/05~06/1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06/08~06/1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09~06/19	시그니처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9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9	시그니처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6/21~06/30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	9박 10일	\$2990+항공
07/01~07/06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특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7/03~07/06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0	아이스랜드&스코틀랜드&노르웨이 크루즈 \$3650+항공	9박 10일	
08/04~08/17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b>마강</b>	13박 14일	\$5990+항공
08/07~08/17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특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3~08/20	알래스카 일주(프리미엄)	7박 8일	\$2490+항공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1차 <b>마강</b>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8/28~09/04	알래스카 크루즈 2차 <b>마강인박</b>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9/04~09/07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10~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3190+항공
09/28~10/11	독일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29~10/06	정통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10/05~10/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590+항공
10/08~10/17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380(인사이드), \$1680(오션뷰)
10/08~10/18	서유럽 3개국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3~10/23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20~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22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7~11/06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9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3490+항공(인사이드), \$3990+항공(오션뷰)
11/10~11/23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3980+항공	
11/13~11/23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5~11/29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2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제주포함) **\$2990+항공** | 8박 9일(내륙관광) **\$2490+항공**

제주 롯데 리조트와 남해안 오션뷰의 최고급 5성 호텔 숙박, 각 지방의 전통 요리를 맛보며 주요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모두 섭렵하는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

**2차 6월 21일~6월 30일 (영어)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  
**3차 9월 15일~9월 25일**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  
**4차 10월 13일~10월 23일** 정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5차 10월 20일~10월 30일**

-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산방산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바닷가 호텔**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프리미엄 다이닝

**한국어 투어 (2인 이상 출발)** 서울 출발-전주-순천-여수-진주-통영-거제 부산-제주-부산-경주(유네스코)-포항-속초

한국의 매력을 한번에! 한국의 전통, 자연 역사를 담은 감동의 일주 코스.	<b>서남권</b> 3박4일 \$849 <b>일출발</b>	<b>제주</b> 2박3일 \$549(부영호텔) <b>수출발</b>
	<b>서남권+제주</b> 5박6일 \$1349 <b>일출발</b>	<b>전국</b> 9박10일 \$2299 <b>일출발</b>
	<b>동해안</b> 4박5일 \$1099 <b>금출발</b>	<b>내륙</b> 6박7일 \$1599 <b>일출발</b>
	<b>제주+동해안</b> 6박7일 \$1599 <b>수출발</b>	

**영어 투어 (1인 이상 출발)** 서울-공주-전주-광주-보성(녹차밭)-순천-부산 경주(유네스코)-대구-안동(하회마을)-평창-양양

한국의 뿌리와 풍경을 따라 멋과 맛,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전통, 역사, 자연여행.	<b>내륙</b> 6박7일 \$1970 <b>토출발</b>	<b>동해안</b> 3박4일 \$1200 <b>회출발</b>
	<b>서해안</b> 3박4일 \$1200 <b>토출발</b>	<b>전국</b> 15박16일 \$4500 <b>매일출발</b>

**TMCI 고국 건강검진**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b>경희대학교</b> (기본검진) 남/여 \$610	<b>서울대병원</b> (기본검진) 남 \$990/여 \$1110	4/1-4/30 \$50 <b>환전</b>
<b>서울삼성병원</b> (Primary) 남 \$1340/여 \$1660	<b>세브란스</b> (강남) 남 \$600/여 \$650	현대아산병원 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탑이 드리는 선물** 고객께 드리는 2가지 특별한 혜택

**1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판매**  
**2 USIM / eSIM 무료 증정! (30 Days)**

- 한국여행-항공권-고국 건강검진 구매시 데이터11GB+무제한 통화 USIM 또는 데이터10GB eSIM (에어 프리미아 구매 고객께도 드립니다)
- 유럽 패키지(윈더홀 투어) 구매시 데이터10GB eSIM 또는 무제한 통화 USIM

※ 4월말까지 구매자에 한함. Cell phone이 unlock되신분에 한합니다.

**2026 성극 여호수아** +아미쉬마켓 당일 (\*\*단체 문의 환영) 4/30, 5/21, 6/4, 6/25, 7/16, 8/6 \$199

**노퍽 세계군악 페스티벌** 4/19(일) \$219

**동부투어**

<b>미동부&amp;캐나다</b> 일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b>뉴욕&amp;나이아가라</b> 일출발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2박 3일 \$650
<b>뉴욕&amp;천심 &amp;나이아가라</b> 일출발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b>뉴욕</b> 일출발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1박 2일 \$399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서부투어**

<b>서부 완전일주</b> 일,월출발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4대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b>서부 4대 캐넌</b> 일출발 5박 6일 \$990+항공	<b>옐로스톤</b> 일출발 3박 4일 \$950+항공
<b>5대 캐넌,세도나</b> 일출발 6박 7일 \$1300+항공	<b>코스타리카 연립</b> 일출발 5박 6일 \$1300+항공	<b>마운틴 러쉬모어 크레이지호스</b> 일출발 3박 4일 \$1040+항공 (5/22, 7/3, 9/4)
<b>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b> 일출발 5박 6일 \$990+항공	<b>캐나다 특키</b> 일출발 4박 5일 \$1190+항공	<b>알래스카</b> 일출발 6박 7일 \$1640+항공

탑여행사 TOP TRAVEL

**인생 바킷리스트 크루즈**

- **캐나다&뉴잉글랜드** 9박 10일 | 10/8~10/17 \$1380(인사이드), \$1680(오션뷰)
-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 10/28~11/9 \$3490(+항공, 인사이드), \$3990(+항공, 오션뷰)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네타나후 헛소리” 참모들 말려도... 트럼프는 전쟁 명령했다

**드러난 이란 전쟁 시작 전말**  
네타나후 “이란 정권 교체할 적기” 백악관서 1시간 동안 공격 부추겨 트럼프 “전쟁 해야 할 것 같다” 명령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의 확신에 찬 브리핑. 일부를 제외한 백악관 참모진의 수수방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트럼프.’

지난 2월 28일 시작돼 39일간 이어진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지난 2월 1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비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NYT는 관계자 취재를 종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나후 총리, 백악관 참모들이 어떤 공방을 거쳐 전쟁에 이르게 됐는지의 과정을 재구성했다.

네타나후가 탄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백악관에 도착한 건 2월 11일 오전 11시쯤이었다. 지하 상황실엔 이미 트럼프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래트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있었다. 회의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당시 아제르바이잔에 있던 JD 밴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다.

네타나후는 1시간 동안 이란 공습 필요성을 강변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핵심은 “지금 이란 정권을 교체할 적기”란 내용이었다.

화상으로 참석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몇 주 내에 파괴할 수 있고 ▶(공습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 만큼 약화할 것이며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이익을 타격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짧았다.

“좋은 생각이군요.(Sounds good to me).”

회의를 마친 CIA는 네타나후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지 상세 평가했다. 검토 결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참수와 반격 능력 무력화는 미국의 정보력·군사력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란 내부 민중 봉기, 세속적 지도자를 내세운 정권 교체가 가능성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봤다.

이후 트럼프와의 회의에서 래트클리프 CIA 국장은 네타나후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farcical)”고 일축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마디로 헛소리(it's bullshit)”라고 거들었다. 케인 합참의장도 “이스라엘은 늘 과장한다”고 깎아내렸다. 며칠 뒤 케인이 다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이란 정권이 항복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각에서 이란 공격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헤그세스였다. 밴스 부통령만 트럼프에게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믿었던 유권자들이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회의 내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습이였다.

결국 첫 공습 이틀 전인 26일 오후 5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다. 밴스는 “나쁜 생각”이라면서도 “(전쟁을) 결정한다면 지지하겠다”고 했다. 케인은 군수품 소진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가 명령하면 군은 실행한다는 입장이었다. NYT는 “모두가 트럼프의 직관에 따랐다.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트럼프는 “(전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의를 끝냈다. 다음 날 오후 트럼프는 전용기에서 이란 공습을 명령했다.

김기환 기자



긴박했던 미국·이란 협상 타임라인 ※미 동부시간(ET) 기준 자료: X(옛 트위터), 알자지라

● 오전 8시20분 미국, <b>하르그섬 공격</b> 다만 에너지 인프라 직접 겨냥은 부인	● 오후 3시17분 파키스탄, <b>마지막 중재 시도</b> 세바즈 샤리프 총리, 트럼프에게 공격 시한 2주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	● 오후 4시50분 외교적 해결 실패리 백악관 “ <b>트럼프, 파키스탄의 제안 인지 후 응답 예정</b> ”	● 오후 6시32분 트럼프, 2주간 “ <b>쌍방 휴전</b> ” 합의 발표
---	---	--	---

## 88분 전 극적 휴전...1등 공신은 파키스탄 총리

(지속문 데드라인)

지난해 트럼프 만나 노벨상 추천 극단 치달은 미·이란 입장 조절 중국도 이란에 “긴장 완화” 요구

극적으로 휴전에 들어간 미국·이란 사이에는 극단으로 치달은 양측 움직임을 조절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페이스메이커’ 파키스탄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X(옛 트위터)에 올린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서 “나는 그(샤리프 총리)를 아주 잘 안다. 세계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해 신뢰를 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사업가 출신으로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총재를 지낸 인물이다.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하며 지난해 9월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와 면담했다. 이후 트럼프를 “평화의 사자”라고 치켜세우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사이의 긴밀한 관계도 중재에 한몫했다. 무니르는 트럼프 가문과 연계한 스테이블 코인을 국경 간 결제에 도입하기로 한 ‘크립토 달’로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가 무니르를 “가장 좋아하는 야전 원수”라고 일컬을 정도다.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으로 전통적으로 중동 분쟁 중재자 역할을 맡은 오

만·카타르를 대체하는 위치에 섰다. 파키스탄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 당시 미·중 비밀접촉을 주도했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미국 간 평화협상을 끌어내기도 했다.

중국의 역할도 조명된다. NYT는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이란에 유연성을 보이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호르무즈해협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에 실패했다.

김기환 기자

## 20년 만에 돌아온 미란다...“한국 꽃신 판타스틱”

**메릴 스트리프·앤 해서웨이 내한** ‘악마는 프라다를...?’ 한국서 첫 개봉 쇠퇴하는 인쇄 저널리즘 등 다뤄

20년 전 전세계 여성들의 가슴에 일에 대한 열정의 불을 지켰던 ‘악마’ 편집장

메릴 스트리프(76)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 인사를 했다. 8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 간담회에서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개봉에 맞춰 첫 방한한 메릴 스트리프는 “6명의 손주가 ‘케이팝 데몬 헌

터스를 좋아해 매일 노래를 부른다.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접하던 차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자리한 앤 해서웨이(44)도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방문은 내 오래된 버킷리스트인데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 최대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겠다”고 말했다.

영화는 2006년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으로, 오는 29일 한국에서 전세계 처음으로 개봉한다. 미국 등 북미 개봉일은 5월 1일이다. 전작은 저널리스트 지망생 앤디(앤 해서웨이)가 패션 잡지사 ‘런웨

이’ 편집장인 미란다(메릴 스트리프)의 두 번째 비서로 채용되며 험난한 사회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새 영화는 20년차 저널리스트가 된 앤디가 미디어 환경 변화 탓에 실직하면서 시작한다. 마침 온라인에서 예상치 못한 스캔들로 위기를 만난 ‘런웨이’가 앤디를 전략적으로 영입하며 둘은 다시 함께 일하게 된다. 메릴 스트리프는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는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mailto: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mailto: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호르무즈 열려도 고유가 계속된다...“공급망 복구 수개월”

지난 1일 다보스 포럼에서 대화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 [A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며 8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7% 가까이 상승한 5872.34로 마감했다.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보이며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하나는 행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각종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 2주 휴전에도 오일 쇼크 경고

WTI·브렌트 100달러 하회했지만 시장, 정상화 신호로 안 받아들여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국제 유가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렸다. 고유가 위기가 가신 건 아니다.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공급망 복구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전쟁 재개 변수도 여전히 때문이다.

8일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 5월물은 전날보다 16.2% 급락한 배럴당 94.7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2.99달러로 하루 새 14.9%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은 휴전 합의를 공급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원유 공급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금융투자사 필립 노바의 프리얀카 사치데바는 보고서에서 “휴전으로 해협이 다시 개방될 수는 있지만, 에너지 기반 시설이 입을 피해를 바로 복구할 수는 없다”며 “이번 분쟁의 진정한 비용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유소 가격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통해 지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 거래 시장에선 이런 불안감을 반영한 ‘백워드이션(Backwardation)’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도받을 수 있는 원유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크게 웃도는 이례적 현상을 뜻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브렌트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44.42달러로 1987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브렌트유 6월물 선물이 109달러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0달러 이상의 괴리가 생겼다. 원유 선물은 통

상 보관·운송 비용이 반영돼 현물보다 비싼 것이 정상이지만, 당장 공급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역전 현상이 생겨났다. 시장에선 해협이 열리더라도 이 같은 현상이 적어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중동 원유 대체 물량에 대한 입찰 경쟁이 시작되면서 브렌트유 시장으로 부담이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중동 원유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소한 올해 연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관 분석도 이런 시장 반응을 뒷받침한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7일(현지시간)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이 열리더라도 공급망이 완전히 복구되고 중동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연료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이 끝나면 즉각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담과는 다른 전망이다. EIA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해협이 닫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열리는 것도 본 적이 없다”며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국제기구는 잇따라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오는 13일 IEA·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위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를 사무총장은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이처럼 심각한 에너지 공급 차질을 겪어본 적이 없다”며 “1973년(1차 오일쇼크)·1979년(2차 오일쇼크)·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 한숨 돌린 금융시장... 환율, 한달만에 1470원대로

### 코스피 전날보다 7% ↑ 5872 마감

신현송 “공급 충격 장기화 땐 대응” 중동사태 따라 금리인상 고려 시사

미국과 이란이 잠정 휴전에 합의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보다 33.6원 내린(원화값은 상승) 1470.6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 11일(1466.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1470원대로 내려온 건 약 한 달 만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대까지 밀리는 등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다.

국내 증시는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7%(377.92포인트) 오른 5872.34에, 코스닥은 53.12포인트(5.12%) 오른 1089.85로 마감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두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SK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잡는 등 코스피 대장주의 기대치를 높인 점도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다만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 있다. 이번 합의가 ‘2주’라는 단기 휴전에 불과한 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 반복 가능성,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협상,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공급 충격이 장기화 지속되면 물가·성장 등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만큼(통화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서를 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오효정·장서윤 기자

“전작이 나온 2006년은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저널리즘이나 인쇄 업계,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바꿔놨다. 영화에서 미란다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인 디즈니에 따르면 전작과 속편을 모두 연출한 데이비드 프랭클린 감독은 “해가 갈수록 쇠퇴하는 인

쇄 저널리즘의 현실을 지켜보며 탐구하다 캐릭터들의 재회를 그려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미디어 환경은 바뀌었지만 커리어 우먼들의 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그대로다. 앤 해서웨이는 “속편에서 앤디는 기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경력, 자신감을 충분히 쌓은 상태에서 미란단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등장한다”고 설명

했다. 메릴 스트리프도 “76세의 나이에 여성 보스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요즘엔 손주들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듣게 된다. 전 세계가 연결돼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사람은 전통 꽃신을 재해석한 하이힐을 선물 받고 “판타스틱하다”며 감탄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메릴 스트리프(왼쪽)와 앤 해서웨이가 8일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 꽃신 모양의 하이힐을 선물받았다.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5 A Return

T X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탈락해야하는 ‘ㄹ’

‘ㄹ’은 자음 가운데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진 다. 혀끝을 뺨기듯 윗잇몸에 살짝 닿다가 뺨 때 나는 소리다. ‘물, 불, 달’. 받침일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혀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야 한다. 자음이지만 모음 같은 성질도 있다.

‘ㄹ’은 쉽게 자리를 비운다.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날 때는 무조건 탈락한다. ‘놀다/ 노는’ ‘졸다/ 조는’ ‘달다/ 단’ ‘떨다/ 먼’처럼 된다. ‘날다’도 자연스레 ‘ㄹ’이 탈락해 ‘나는’이 된다.

그렇지만 ‘날으는 새’ ‘하늘을 날으는 자동차’ 같은 잘못된 표현도 흔하다. ‘놀다’ ‘졸다’ 등에서 안 그러는데, ‘날다’에선 ‘으’를 붙이려고 한다. ‘나는 새’라고 하면 ‘날다’는 느낌이 안 온다는 이들도 있다.

‘무지개, 무좀, 무자리, 무자맥질’. 이 말들에서도 ‘ㄹ’이 탈락했다. 여기서 ‘무’는 모두 ‘물’이었다. ‘ㄹ’은 ‘ㄴ’ 앞에서도 조금 자취를 감춘다. 대부분 “울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노랫말에서는 “우지 마라”도 보인다.

‘떨지 않다’라는 말에서는 ‘ㄹ’이 탈락하면서 ‘머지않다’라는 낱말이 생겨났다. ‘떨지 않다’가 시간과 공간에 다 쓰인다면 ‘떨지 않다’는 시간과 관계된 맥락일 때만 온다. ‘ㄹ’로 끝나는 말은 명사형을 만들 때 ‘ㅁ’을 붙인다. 모음으로 끝나는 말과 같다. ‘놀다/놀’ ‘졸다/졸’ ‘달다/달’ 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스크린 속 전쟁,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정 레지나  
LA독자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파괴의 현장에 록 밴드 AC/DC의 강렬한 기타 선율이 흐른다. 화면 구석에는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것은 게임 트레이일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공개한 이란 공습의 실제 영상이다.

미-이란 무력 충돌은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공습 장면이 비디오 게임 클립처럼 편집되고, 애니메이션이나 할리우드 영화 장면과 교차된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한 편의 전투 게임처럼 엔터테인먼트화된 것이다.

이러한 홍보 전략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이란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에서의 우위를 주장하는 선전물과 허위 정보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AI(인공지능)로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쟁 홍보와 심리전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역사는 인류의 무력 충돌 역사만큼 오래됐다. 핵심은 항상 동일하다. 아군의 정당성과 승리 확신, 그리고 적의 악마화다. 매체만 진화했을 뿐이다.

고대와 근대에는 정보전이 지도자의 위엄과 위상에 집중됐다. 1차 세계대전 후 신문과 포스터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조직적인 면모를 띠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선전의 위력을 극대화한 인물이었다. 논리를 감정과 자극으로 대체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를 통해 선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반복된 전쟁 메시지로 대중의 인식을 지배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여론전의 분수령이었다. 1970년대 TV 시대가 열리며 전쟁의 참상이 중계되자 반전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걸프전(1991년)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반영해 선별되고 통제된 영상만 공개됐다. 정보는 설계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정보전은 내용보다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집중한다. 미화 되고 게임화된 영상은 전쟁을 안보의 최후 수단이 아닌, 조회 수를 올리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변질시킨다. 시청자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가공된 이미지에서 쾌감과 몰입감을 느낀다. 이를 ‘스펙터클 정치’라 부른다. 실제보다 보이는 이미지나 소비되는 이

미지에 집중하는 스펙터를 정치하는 시청자를 관찰자가 아닌 지휘관의 시점에 놓아 위험한 환상을 심어준다.

맥락을 제거하고 특정 장면만을 강조하는 믿음 특히 강력한 선전 도구다. 스크린에 인기 게임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활보하고, 친숙한 레고 인형이 전투를 하면 시청자는 친밀한 시청 경험을 얻는다. 미국은 전쟁을 희화화하여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거나 국가의 우월감을 강조하며, 이란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반감을 조장하고, 역전 서사를 믿으로 퍼뜨린다. 전쟁은 언제나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더 이해하기 쉽고 덜 불편한 형태로 재구성되어 왔다. 신문과 포스터는 전쟁에 대한 의무감을 세뇌했고, TV는 생중계로 전쟁의 비극과 고통을 드러냈으며, 밈과 쇼트 폼은 손끝의 유희가 되어 심리적 거리감을 제거한다.

정보전 전문가 루카스 올레이나키 지적한 것처럼, 알고리즘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감정의 틀을 완성한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인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서사를 강화하는 심리전 설계자가 됐다. 전쟁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데, 우리의 인식은 화면 위에서 형성된다. 비판적 거리 두기 없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만든 프레임 안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았나?

발언대

피로 지킨 바다, 말로 지킬 수 없다



이 재 학  
LA 6:25 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며칠 전 한국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평화가 곧 안보다”라는 말은 듣기에 온화하지만, 국가 안보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하는 선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에 앞서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다. 말로는 자주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안보 태세를 흔들거나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공백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 자리에 있던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정자 여사의 절규는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다.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지키려 하겠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가볍게 취급된다면, 그 어떤 젊은이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유화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미 간 연합훈련을 둘러싼 균열까지 노출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선의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힘의 균형과 분명한 억제력이 있을 때 비로소 대화의 미를 갖는다.

더욱이 오늘의 서해는 복합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뿐 아니라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같은 새로운 도전까지 겹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판을 부를 위험이 크다.

“평화가 안보다”보다 “안보가 평화다”가 맞다. 평화라는 목적의 조건은 안보다. 스스로 지킬 힘

이 있을 때만 평화는 유지되고, 그 힘이 흔들릴 때 평화는 무너진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증명했다. 그런데도 종종 듣기 좋은 말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자주국방’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지향점이다. 그러나 한반도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 ‘완전한 자주’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첨단 무기 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동맹의 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다. 오히려 자주국방은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의 선택권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의 안보 정책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장에서 산화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피로 지킨 바다는 결코 말로 지킬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안보로 답해야 한다.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ellow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Advertisement for Choi Ji-ho's Geriatric and Geriatrics Clinic, featuring services like 24/7 phone consultations, medical management, and acupuncture/massage.

# “공급망 위험 세계 최고...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다소 모호해 보이던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올 때가 있었을까. 서울에서 6500km 떨어진 좁은 물길, 중동의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한국 경제의 혈맥도 동시다발적으로 막혔다. 동네 편의점의 쓰레기봉투가 동이 나는 사이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떨어뜨렸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탄광 속 카나리아’(스티븐 로치)라는 말도 다시 회자됐다.

실제로 우리는 공급망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 걸까.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플라스타장)만큼 이 질문에 천착해 온 이도 드물다. 다분히 전문 중심이던 경제안보 분야에서 그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국가 간 무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위험도를 추적해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안보 지수’는 수입 취약성 면에서 한국이 단연 최상위위를 수치로 보여준다.

우리의 이런 공급망을 적당히 손대는 수준으로 버티기에는 세계가 너무 위험해졌다. 호르무즈가 열리더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 또다시 충격이 닥칠지 모르다. 박 교수는 공급망 재편을 위해 우선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립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20년 전 ‘공세적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처럼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세계 경제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파장이 컸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건가.  
“새로운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간 경제안보는 주로 마중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해왔다.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프레임이다. 하지만 이런 공격 과정에서 눈에 띈 건 패권국 미국의 리더십 후퇴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놓고 ‘불편을 겪는 나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온 건 충격적이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는 게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 세력권을 허용하게 되는 꼴이 된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 공백 속에 곳곳에서 질서 교란자들이 나타나는 이른바 ‘킨들버거의 함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킨들버거의 함정: 패권국이 국제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자유무역·안정적 통화)를 제공하지 못하



박종희(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플라스타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2일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났다. 장진영 기자

고, 신흥 국가도 그 역할을 맡을 의지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혼란 상태.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20년대 말 대공황의 원인을 이런 세계 리더십 공백에서 찾았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이를 재조명해 유명해졌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유독 충격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데이터로 본 취약성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안보 지수를 측정할 때 특정 품목에 지배력이 큰 국가에 수입 의존도가 높다면 ‘수입 취약성’이 있다고 봤다. 희토류가 전형적이다.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고, 우리의 수입 의존도도 높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 희토류 같은 수입 품목이 많을수록 위험성은 커진다. 이를 전제로 측정할 취약성은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  
“우리만큼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양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해야 하고,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주요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도 영향을 줬다. 기업의 수가 많으면 공급선도 다양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수출의 대부분을 소수 대기업이 도맡는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 굳이 공급선을 여러 군데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한 곳에서 많이 사와야 장기 거래가 되고 단가도 낮출 수 있어 효율적이지 않아요.”

**일본, 장관직 만들고 자료 축적**  
**한국은 소관 부처도 모호해**  
**‘동시다발 FTA 전략’ 때처럼**  
**과감한 전환으로 재편 나서야**

### 기업에만 맡겨선 다변화·비축 한계

-기업은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때때 조달하고 만들어 비용과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생산(Just in Time)이 미덕이지 않나.

“개별 기업에는 효율적이지 모르지만, 공급망 충격에는 너무 취약한 산업 구조다. 적기 생산의 원조인 일본의 토요타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재 때 크게 당하지 않았다. 희토류는 토요타의 주력상품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핵심 원료다. 과급력을 체험한 이후 토요타도 베트남 등에 투자해 공급선을 다변화했다. 공급선도 문제지만 우리는 민간 비축도 너무 적다. 이번엔 원유가 문제였지만, 사실 원유는 다른 원자재에 비하면 비축이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나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정유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는 쉽게 잊힌다. 대란을 겪었던 요소수만 해도 한때 중국의 의존도를 낮췄다가 충격이 가시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니 기업에만 맡겨놓아선 안 되고 국가가 나서야 한다. 중요한 건 인센티브다. 사후적 보상이 아닌 선제적 보

상이 필요하다. 예컨대 요소수를 우선 비축하고 보상은 나중에 한다면 누가 나서겠나. 창고 비용, 보험료 등 기업 입장에서 모든 게 비용이다.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하면 큰 손실도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공급선 다변화, 비축 외에 리스크를 줄 일 다른 방안은.

“핵심 소재나 부품은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꼭 국내 기업도 맡을 필요는 없다. 전문성이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현지 소재·부품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을 지으면서 위기가 상당히 진정되지 않았다. 전략 물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공급망 다변화, 비축, 국내생산 등 정책 옵션을 쭉 펼쳐 놓고 품목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품목마다 어디서, 얼마나 들여 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텐데.

“미국과 일본이 경제안보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자료 확보였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 당시 물리학 전공 박사들을 모아 자료부터 모았다.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정부 산하 기관이 나서 오래전부터 자국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모아왔다. 이런 자료가 구축돼야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고, 위기가 닥칠 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나프타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이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자면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하나.  
“우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자료부터 모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안보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조차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경제안보상이란 별도의 장관직을 두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 다카이치 사사에 현 총리가 바로 경제안보상 출신이다. 현재 우리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에는 경제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게 돼 있다. 하지만 부처를 뛰어넘는 협력을 추동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이 나서 막힌 곳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청와대·재경부·금융감독위가 매일 만나 조율하고 점검했다.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경험을 경제안보에도 적용해야 한다.”

### UAE같은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한국 경제에서 위기는 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다.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한 통상·산업 전략은.

“이번에 우리에게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실마리가 있다. 단순한 경제·외교 협정이 아니라 원전과 방산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협력하고, 커져야 신뢰를 쌓아놓은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UAE의 사례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닥치면 국가 간 매듭이 느슨해진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매듭으로 묶여놔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조업 역량을 지켜왔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전·방산·반도체·조선 등 우리가 가진 카드가 예전보다 많다. 호주, 칠레, 캐나다 등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와 연결 고리가 많은 거점 국가들을 집중 공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런 전략을 선도적으로 구사해 성공해 본 경험이 있다. 2000년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 고립될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유럽연합(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돌파했다. 그런데 이제 FTA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다시 한번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조민근 논설위원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시 설

### 호르무즈 휴전, 자유 항행 국익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미국과 이란이 어제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하나의 문명사회가 사라질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인간 띠’로 맞선 이란의 차진게임이 파국 직전에서 멈춰선 것은 천만다행이다. 오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직접 협상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촉즉발의 전쟁 공포 속에서 어렵게 되살아난 대화의 불씨가 완전한 종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약 2000여 척의 선박이 갇혀 ‘대탈출’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란군의 엄격한 통제와 사전 승인 절차로 인해 극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된다. 장기간 대기로 선박 상태가 악화되고 연료와 식량마저 고갈된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물론 관계국들과 협의해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조기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속제는 종전 이후다. 해협이 열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자유 항행이 보장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발표 직후 SNS 글을 통해 “미국이 해협의 정체를 해소해 줄 것”

이라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통행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엔 안보리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이다. 자칫 호르무즈가 특정국의 ‘통행세 징수구역’으로 고착된다면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이 뱃길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호르무즈 문제는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신속한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포스트 이란전쟁 시대의 해협 질서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공조해 자유 항행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향후 해협 관리 체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용국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과 직결된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2주의 골든타임에 모든 외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 전방 병력 대거 감축한다는 군, 북 위협 대비 역량 충분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7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2만2000명인 최전방 지역의 경계병력을 6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전방 지역의 병력 조정 숫자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안 장관은 “AI(인공지능) 기반의 과학화 시스템을 구축해 GOP(최전방 일방 전초)에 6000명 정도의 경계 병력을 남기고, 1만6000명 이상을 후방(GOP 이남의 전투 거점 지역-FEBA)으로 옮겨 상황 발생 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방 지역의 북한군 감시와 초기 대응을 과학화한 장비로 대신하며 전투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군사 위협 고조와 우리 군 경계 시스템의 과학화 수준을 고려하면 전방 지역의 병력 대규모 감축을 서두르기만 할 일은 아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이후 전방 지역에 철책을 설치하고, 전자 방호벽을 건설하는 등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까

지 했지만, 북한은 7일과 8일 연거푸 미사일로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진대 전방 경계병력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이다. 행여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으로 전방 경계병력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 당국은 답해야 한다. 인구절벽을 감축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왜 대상이 하필 전방 경계병력인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내세우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아직 불안전하다. 군은 20년 가까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강조해 왔지만, 노크 귀순을 비롯해 철책이 풀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군은 4600억원을 들여 과학화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전방 지역에서 군이 요구하는 조건(ROC)을 충족하는 기술 보유 업체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전력의 수시로 빠져나가면서 안보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병력 감축에 앞서 북한 위협과 우리의 대비 역량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 개전은 쉽지만 종전이 어렵다

정호식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좋은 전쟁은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은 현대 전쟁사에서 그대로 증명됐다. 무역과 항공-해운, 최근엔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된 국제 환경에서 참전국뿐 아니라 이해 관련국들로 피해가 쉽게 확산된다.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불확실성도 커졌다. 전승국 입장에서 전쟁 목적을 달성한 전쟁은 1982년 포클랜드전쟁과 1991년 걸프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포클랜드전쟁은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제도를 기습 점령하자 영국이 두 달 만에 수복했고, 걸프전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5주 만에 격퇴한 전쟁이다. 군사력 격차에 기반한 현상 회복 목적의 단기 제한전이였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중동에서 이미 두 차례 전쟁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 첫 번째가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힘들다”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토론했던 아프가니스탄전쟁(2001~2021년)이다. 전임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한 달 뒤 알카에다 소탕을 목적으로 아프간을 침공해 두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며 시작한 전쟁이다. 정작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 다시 10년 뒤 바이든 정부가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자 석 달 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했다. 20년간 2400여 명의 미군 희생자를 내고 아프간 정부군 지원을 포함해 3조 달러의 전비를 쓰고도 결국 패전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개발한 대량살상무기가 테러 조직에 활용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바그다드를 함락한 이라크전쟁(2003~2011년)이 두 번째 사례다. 후세인을 사살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대량살상무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정당성을 의심받는 전쟁이다. 이를 위해 미군 4600여 명이 희생되고 2조 달러의 경제적 대가를 치렀다. 공식 종전 선언과 미군 철수 이후 2014년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한 추가 파병으로 특수부대 등 미군 수천 명

이 주둔 중이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및 기지들은 현재 이란전쟁에도 동원되고 있다.

역사가들이 전쟁을 ‘필연의 전쟁(wars of necessity)’과 ‘선택의 전쟁(wars of choice)’으로 구분할 때 이란전쟁은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후자로 분류될 것이다. 필연의 전쟁은 적(국)에 의해 영토와 국민이 침공당한 경우처럼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반면에 이번 전쟁은 미국 지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 일어났다.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해선지, 세계 매장량 3위인 이란 석유 때문인지 당사자의 말부터 오락가락해 목적조차 모호하다.

또 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전쟁의 대가는 유럽과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의 석유가 나지 않는 동맹국이 치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원유 현물시장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른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고, 그마저 물량이 제

### 이란전쟁, ‘필연’ 아닌 ‘선택’의 전쟁 20년 수렁 이라크전처럼 목적 모호 호르무즈 통행료 동맹에 비용 전가

한돼 나프타 등 석유화합단지는 물론 플라스틱 소재 부품업체들은 조업 중단을 고민할 정도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이란이 거두기로 한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도 고스란히 우리 부담이 됐다. 최종 종전에 합의하더라도 이란 재건 비용 등을 중동 원유 수입국에 전가할 공산도 커졌다. 10여 년 지속된 저유가 시대가 저물고 배럴당 100달러 이상 고유가 시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자원의 무기화가 확산할 수도 있다.

전후 미국과 동맹이 주도한 질서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시작으로 동맹 해체에 나선다면 세계 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도 파장이 밀려올 것이다. 지도자의 오만 대가가 너무 크다.

##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저판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NHK WORLD, 한국 연합뉴스)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 박용석 만평



parkys@joongang.co.kr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백성호 CPA, MBA

-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업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CMM 회원 혜택

-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LÓTTE<sup>PLAZA</sup>market**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APR. 9TH-APR. 16TH, 2026



**바베큐생삼겹살**  
 PORK BELLY BBQ  
**\$599** ~~\$999~~  
 LB

**생삼겹살수육**  
 PORK SINGLE RIB BELLY CHUNK  
**\$599** ~~\$899~~  
 LB

**생삼겹살찌개**  
 PORK SINGLE RIB BELLY CHOP  
**\$499** ~~\$599~~  
 LB

**비비고 포기김치**  
 WHOLE CABBAGE KIMCHI  
**\$1499** ~~\$2599~~  
 2 KG



**고기부터 김치까지, 완벽한 한상**  
*Everything you need for the perfect pork belly meal*

만질중오일자가인될수있습니다. 일부품목은사정에따라조기종료되는수령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Richmond, VA 30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 Sterling, VA 30 Polyan Hill Dr. Sterling, VA 20159
- Centreville, VA 9900 Center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065 Alantotsch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5204 Fort Royal Pl.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030 Farmers Heart Plaza. Ashburn, VA 20147
- Ellicott City, MD 89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Catonville, MD 8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902 Vein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ashl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9, 2026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종증**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가주 '모듈러 주택' 도입 추진

공장에서 주택 제작해 대량 생산 시스템 모색  
공사기간 50%까지 단축  
비용 10~25% 절감 효과

가주의회가 모듈러 주택 도입에 나섰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집을 박스형 모듈로 완성해 현장으로 가져와 쌓아 올린다. 세련된 디자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버피 워스 주하원의원은 최근 '주택 건설 혁신'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공장식 주택 건설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다.

워스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허가 절차를 개혁하는 등 주택 건설 규제 완화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발의한 도시 아파트의 환경 소송 면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했다. 워스 의원이 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설비용 때문이다. 그는 "지난 8~10년간 입법부와 주지사가 주택 건설과 관련한 관료적 장애물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 문제는 건설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장식 주택은 부분 패널 방식부터 전체가 완성된 3차원 모듈 방식까지 다양하다. 가주에서는 지난 10년간 관련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크레인모듈을 조립하는 장면은 흔한 광경이다. 건설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생산성이 정체된 부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건설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3년 건설 노동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94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 건설을 자동차 산업처럼 조



가주의회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모듈러 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에서 모듈러 주택 일부를 트레일러에 싣는 모습.

립 라인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뮤추얼 하우스 캘리포니아의 라이언 캐시디 부사장은 "자동차를 살 때 6000개 부품을 집으로 보내 조립하지는 않는다"며 공장식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C버클리 터너 주택혁신센터에 따르면, 공장에서 조립하는 오프사이트 건설은 공사 기간을 10~30% 단축할 수 있다. 일부는 50%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용 절감 효과는 조건이 맞을 경우 10~25%로 추정한다.

공장식 주택에서 최대 난관은 조건을 맞추는 것이다. 공장은 설립과 운영 비용이 막대하다. 대량 생산 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을 넘기 어렵다. 문제는 주택 산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지역별 규제와 설계가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승인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파이프라인 구축

이 어렵다. 공장식 주택은 또 초기 비용이 앞당겨 투입되는 구조다. 설계와 자재를 공장 가동 전에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 2021년 20억 달러를 투입한 모듈러 스타트업 '카테라'가 파산한 사례는 업계에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의회가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전체 주거 건설의 약 절반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가주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청문회는 세 가지 방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공공 프로젝트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공장식 건설을 우대하거나 고려하도록 해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장과 개발자의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보험 역할을 늘리는 조치다.

셋째, 건축 코드 표준화다. 현장에서 로컬 정부의 추가 점검으로 건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물론 공장식 주택이 가주의 주택난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워스 의원은 오히려 공장 설립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공장식 주택을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식 주택이 처음 등장하는 1971년이다. 조지 롬비 당시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은 '주택 혁명의 도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50여년 동안 주택 건설의 산업화 노력은 번번이 좌절했다. 그러나 주택 위기가 심화한 지금, 가주는 '해리 포드식 주택' 실험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부동산 학교**  
수업료: \$350 (교재비: \$100) **5주 속성반**  
2026년 4월 14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한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버지니아**

- 1.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채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 2. \$1,4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 3. \$1,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티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 4.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메릴랜드**

- 1.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 2.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 3. \$1,075,000 포트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2+1, 차고 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DC**

-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 중산층 안 줄었다... 소득 증가에 '상향 이동'

상위 중산층, 45년간 3배 ↑  
“붕괴 주장은 상대적 개념”  
부유층 비중도 3.7%로 증가  
고학력자 증가·맞벌이 영향

소득 증가에 힘입어 ‘상위 중산층 (upper middle class)’으로 진입하는 국내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산층 비중이 줄고 있다는 통념과 달리, 상당수 가구가 절대적 소득이 늘면서 상향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1월 발표한 ‘상위 중산층 급증에 따른 중산층 축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AEI는 국내 가계를 소득에 따라 부

유층, 상위 중산층, 핵심(core) 중산층, 하위 중산층, 빈곤층·근접 빈곤층 등 다섯 그룹으로 나눴다. 이 중 빈곤 가구의 5~15배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상위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2024년 3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3만3000~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위 중산층의 비중은 1979년 10.4%에서 2024년 31.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부유층 가구의 비중도 0.3%에서 3.7%로 증가했다.

반면 핵심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1979년 35.5%에서 2024년 30.8%로 줄었다. 하위 중산층은 24.1%에서 15.8%로, 빈곤층은 29.7%에서 18.7%로 감소했다.

AEI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심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가구의 비중(34.8%)이, 못사는 가구 비중(34.5%)

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상위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 점유율 합계는 같은 기간 28%에서 68%로 크게 늘었다.

AEI는 “중산층 붕괴 주장은 중산층을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비록 불평등하더라도) 소득 증가를 불안정성 증가와 생활 수준 저하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상위 소득층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출 학력의 사무직 근로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이 같은 상향 이동의 배경으로 고학력 전문직 수요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합산 효과 등을 꼽았다.



한 소비자가 바구니를 들고 식료품을 쇼핑하고 있다.

[로이터]

다만 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거 상승이 체감 소득 개선을 제약할 수 비와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의 가파른 있다고 지적했다.

## 3월 전국서 주택거래 급등

잠정주택판매 28만1546채  
금리 상승에도 수요 증가

봄철 성수기 진입과 함께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질로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잠정주택판매 건수는 총 28만1546건이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기준으로 2025년 5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4.6%, 전달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각각 2021년 이후 역대 3월 최고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제 판매량 역시 증가해 3월 주택 판매는 약 30만398건으로 전년 대비 3.7%, 전달 대비 25.2%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 전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일부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거래 활동이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풀이했다.

특히 매물당 하루 평균 페이지 조회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이는 수요 증가 속도가 재고 증가를 앞지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시장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재고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달 기준 전국 매물은 123만 채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9.5% 늘었다. 신규 매물은 38만4854채로 전년 대비 0.1% 증가해 사실상 보

합세를 보였지만, 1~2월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시장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재고는 2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경쟁 강도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주택이 계약 단계로 전환되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중간값 기준 19일로, 지난해보다 2일 길어졌지만 전달보다는 9일 단축됐다. 가격 인하 매물 비중은 22.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2.4%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36만5545달러로,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2월의 연간 상승률 0.4%보다 소폭 가속된 수치다.

한편 LA의 경우 중간 집값은 96만2935달러로 전달 대비 0.8%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0.2% 하락한 모습이 었다.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4.9% 증가했다.

우훈식 기자

## 조립식 주택은 평균 가격 16만7000불

모듈러 주택과 달리 조립식 주택은 벽면이나 골조를 배달해 현장에서 조립한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형 주택에 유리하다.

프레디맥이 2024년 센서스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주의 신규 조립식 주택 평균 판매가는 16만7000달러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5.4% 높은 수준이다.

단일 섹션 주택의 평균 가격은 10만4000달러였으며 더블 섹션은 17만8700달러였다. 최근 1년간 가격은 8.1% 상승했고 5년간 51.1%, 10년간 72.2% 상승했다.

공장에서 먼저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조립식 주택은 단일 섹션이나 두 개 이상의 섹션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공장에서 영구 철제 프레임 위에 제작된다. 최근에는 크로스모드와 같은 현대식 조립 주택이 등장해 경사 지붕과 영구 기초, 현관, 차고 등을 갖춰 외관상 전통 주택과 구분이 어렵다.

조립식 주택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제정한 HUD 코드를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은 설계와 구조, 내구성, 내화성, 난방·배관·공조 시스템, 단열 및 전기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등을 규정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붕 하중과 풍압 저항, 단열 성능 기준도 맞춰야 한다.

조립식 주택은 바퀴가 달린 모바일 주택과는 다르다. HUD 코드가 아닌 주와 로컬정부의 건축법을 따르는 모듈러 주택과도 구분된다.

조립식 주택 가격은 단일 섹션 크로스모드 주택의 평균 가격 기준으로 토지를 포함해 20만 달러 수준이다. 현장 시공 주택의 평균 가격이 50만 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조립식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있다. 프레디맥의 초이스 홈(CHOICEHome) 모기지에는 크로스모드 주택의 경우 다운페이먼트로 매입가의 3%만 내도 된다.

## 15억 집에서 생활비 걱정... 1주택자 노인의 자화상

60세 이상 하우스푸어 134만 가구

15억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초반 김모씨. 2018년 7억원대에 사들인 집값이 두 배로 뛰었지만, 노후는 팍팍하다. 국민연금과 자

녀 지원 등을 합쳐 월소득은 250만원 남짓이다. 대출 원리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김씨는 “이 나이에 집을 팔고 오래 산 동네를 떠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집값은 올랐지만

쓸 돈은 줄어든 ‘시니어 하우스푸어’의 전형이다.

중앙일보가 8일 국가데이터처가 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5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자가 보유 가구 622만 가구 중 134만 가

구(21.6%)가 이런 유형에 해당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이번 분석에서 시니어 하우스푸어는 총자산의 70% 이상이 주택에 묶여 있고, 금융자산이 연 소득에 못 미치며, 소득 하위 50%(월 305만원 이하)에 속하는 60세 이상 자가 가구로 정의했다. 2017년 117만 가구에서 지난해 134만 가구로 늘었다.

기존 30~40대 하우스푸어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정의했다면, 이들은 벌이가 마땅찮아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에게 무조건적인 매도를 권할 것이 아니라, 거주권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주문한다.

김원기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565,000**

방3 / 화3.5 / 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센터빌 타운홈**

**\$680,000**

방4 / 화2.55 / 차고2  
End Unit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SOLD**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 하락폭 커지는 시장... 손실 최소화 집중해야

## 시장 성격 변화와 자산 보존

2026년 초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장밋빛 낙관론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다. 2월 10일 정점을 찍은 이후 시장은 지난 1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일시적 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하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하락이 언제쯤 멈추고 다시 반등할 것인지 묻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더 근본적인 변화, 즉 시장의 '성격 변화(Change of Character)'를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방식과 그 내부의 질적인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기술적·펀더멘탈적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전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본다.

### ▶지표의 착시와 시장 내부의 실태: '50%의 법칙'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용어는 '시장 폭(Market Breadth)'이다. 이는 시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만 오르는지 아니면 대다수의 종목이 함께 오르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다우 지수(DJIA)나 S&P 500 지수 자체는 고점 대비 약 10% 내외의 하락을 보이며 '조정(Correction)'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려를 낳는다. 잘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4월 현재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에 포함된 전체 종목 중 50% 이상이 이미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을 공식적인 하락장(Bear Market) 진입으로 규정한다. 즉, 지수는 아직 견고해 보일지 모르나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의 절반은 이미 깊은 하락장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소수의 메가캡(Mega-cap)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비중을 이용해 지수를 방어하는 동안 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이는 시장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다. 강제



하락세가 역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방어적인 포지션이 강조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난 6일 한 직원에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주요 종목 50%이상 고점 대비 20% 떨어져 강제장에서 보기힘든 광범위한 붕괴 우려 FIA, RILA 등 리스크 관리형 상품들 활용을

장에서는 결코 이런 광범위한 내부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 ▶펀더멘탈 진단: 전쟁이라는 '트리거'와 과평가된 자산의 총돌

최근의 시장 하락을 두고 많은 이들이 '이란 전쟁(The Iran War)'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냉정한 펀더멘탈 분석에 따르면 전쟁은 하락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이미 한계치까지 부풀어 오른 자산 가격을 터뜨린 '방화쇠(Trigger)'에 불과하다.

현재 시장의 주식들은 역사적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평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기업의 실제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익 전망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이른바 '스마트 머니(Smart Money, 기관 및 전문 투자자의 자금)'의 움직임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기관들은 이미 조용히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의 매도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많은 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저가 매수(Buy the Dip)'를 권유하며 낙관론을 유포한다.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전형적인 '분산(Distribution)'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머니가 떠난 시장에 개인들만 남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 ▶고금리의 역습: 채권 시장이 보내는 치명적인 신호

주식 시장 못지않게 위험한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Yield)은 심리적·기술적 마지노선인 5.02%를 향해 치솟고 있다. 채권 금리의 상승은 주식 시장에 두 가지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먼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다. 부채 부담이 큰 기업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깎아 먹는다. 그리고 자금 흐름의 역전이다.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의 매력도를 높여 주식 시장에서 머물던 자금을 흡수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포지션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 용어 중 '역발상 지표(Contrarian Indicator)'라는 것이 있다. 대중이 한 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몰릴 때 시장은 종종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인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금리가 이제 정점이니 채권 가격이 오를 것(금리 하락)'이라 믿고 채권을 대거 사들였지

만 실제 금리는 계속 오르면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이 공포에 질려 채권을 투매하는 '항복(Capitulation)'이 나오기 전까지 금리 상승 압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 ▶자산 관리의 새로운 정의: 수익보다 자산 보존(Preserve Capital)

시장이 이처럼 구조적인 변화를 보일 때 투자자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은 '수익 극대화'가 아닌 '자산 보존(Preserve Capital)'이다. 하락장에서는 10%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의 손실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락 후 반등장에서 원금을 지켜낸 자만이 복리 효과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과 같이 방향성이 특정되기 어려울 때 현명한 전략적 운용 어프로치를 세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현금의 전략적 활용이다. 많은 투자자가 현금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상태'로 오해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변동성 불확실성 국면에서 현금 리스크를 완벽히 피하면서도 향후 자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폭락했을 때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 자산'이다.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을 유의미하게 높여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스템적 추세 추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핵심은 주관적인 예측을 배제하고 시장의 추세가 붕괴되었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지수들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모한 저가 매수보다는 시스템이 가리키는 '하향 신호'를 인정하고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과학적인 투자다.

셋째, 리스크 완화 도구의 결합이다. 단순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하락 시에도 손실 폭을 제한하거나 회복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시장이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등을 보일 때도 자산을 보호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버퍼(Buffer)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권 최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COMING SOON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SALE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SOLD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교통/생활/학교/안전한 인기있는 터운하우스 단지, 방 3, 3.5, Nice Owner
UNDER CONTRACT	5901 Sunstone Ln, Haymarket, VA	RENT	주재원 (3년)
UNDER CONTRACT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NEW	4/1 입주가능 \$5,200 명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4.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UNDER CONTRACT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RENT	마켓에 내놓자마자 너무 좋은 세입자 계약 완료, 주인/세입자 모두 해피
UNDER CONTRACT	6501 Divine St, McLean, VA	RENT	공실없이 28개월 장기렌트 완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종교 방송국 수, 사상 첫 컨트리음악 추월

종교 방송국 수가 사상 처음으로 컨트리음악 방송국 수를 추월했다. 컨트리음악은 2015년 1월 이후 오랫동안 라디오 방송국 수 1위를 지켜왔으나 마침내 기록이 깨졌다.

인사이드 라디오와 프리시전트랙이 집계한 2월 월간 방송국 수 통계에 따르면, 종교 중심 방송은 2156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교 방송은 종교 교육 프로그램과 찬송, 종교 관련 콘텐츠 등을 내보내는 방송국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방송국 수 기준 상위 3개 포맷은 컨트리와 뉴스·토크, 종교가 차지했다. 다만 종교는 오랫동안 2위와 큰 격차로 3위에 머물렀다. 방송국 수도 2004년 5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컨트리는 2008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뉴스·토크에 밀려 2위로 물러섰으나 2015년 들어 다시 1위를 되찾은 뒤 계속 양쪽을 지켰다.

종교 방송의 상승세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졌다. 2019년 10월 종교 방송국은 2000개를 돌파한 뒤 뉴스·토크와 2~3위를 주고받았으나 2023년 6월부터는 2위를 확고하게 굳힌 뒤 올해 2월 1위로 올라섰다.

종교 방송은 설교와 강의, 토크 중심의 교육과 버라이어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 음악 중심의 컨템퍼러리 크리스천(CCM)과 따로 분류한다. 이 둘을 합하면 신앙 기반 방송국은 약 3600개로 늘어난다.



종교 방송이 컨트리음악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 수 1위를 차지했다.

**2월 기준 2156개, CCM 더하면 3600개**  
**최근 가파른 성장, 순증가도 1위 차지**

2월 집계에서 종교 방송이 1위로 올라선 배경에는 최근 석 달 간 흐름이 맞물려 있다. 종교 방송은 지난해 12월 이후 방송국이 꾸준히 늘며 23개를 추가했다. 같은 기간 컨트리 방송은 16개가 줄어드는 감소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종교 방송은 컨트리 방송을 22개 차이로 앞서게 됐다.

최근 12개월만 놓고 봐도 종교 방송

의 증가 폭은 다른 방송을 압도했다. 종교 방송은 83개를 추가해 모든 방송 가운데 순증가 1위를 기록했다. 상위권 방송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4위의 CCM과 5위의 스페니시로 방송국이 각각 37개와 20개가 늘었다. 같은 기간 컨트리 방송은 31개가 줄었다.

다른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CCM

은 202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방송국 수가 감소했다. 올해 1월 대비 2개 줄어든 수준이지만, 감소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CCM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국 66개를 추가하며 48% 증가라는 가파른 확장세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순위 교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컨트리 방송국 수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면 종교 방송은 공격적인 인수 전략과 비영리 모델을 기반으로 상업 방송이 따라오기 어려운 속도로 방송국을 늘렸다. 라

디오 전문가들은 컨트리가 약해졌다고 보다는 종교 방송이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교 방송은 청취자들의 취향이 갑자기 변한 것보다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 방송국 수를 늘렸다. 종교 방송 사업자들은 상업 방송사의 주파수를 인수해 신앙 기반 방송으로 전환하고 있다. 라디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은 방송을 종교 방송사에 매각하고 있다.

종교 방송이 청취자의 기부로 인수와 운영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상업 방송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라디오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종교 방송의 모델은 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시장 차원에서 보면 종교 방송의 성장이 반드시 컨트리를 대체한 것은 아니다. 종교 방송이 컨트리의 희생을 딛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종교 방송에 매각된 방송국은 대부분 컨트리가 아니었다.

종교 방송 중에서 특히 로컬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크리스천 방송은 지역사회 봉사나 젊은 청취자를 겨냥한 새로운 포맷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명을 중심으로 놓고 기술 도입과 디지털 확장,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종교 방송의 특성상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안윤희 객원기자

## 종교 라디오, 음악이 방송 시간 절반 차지

**평균 2시간 정치·시사 할애**  
**트랜스 권리 확대에 부정적**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98%가 하나 이상의 종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취 가능한 방송국의 압도적 다수가 기독교 방송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한 상황에서도 성인의 45%는 종교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 또 이들 중 4분의 3은 가끔 방송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만 시간 이상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종교 라디오는 설교나 전도 콘텐츠에만 머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종교 방송이 정치와 시사 문제를 다

루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과 자기계발, 가족과 양육, 건강과 웰빙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종교 방송 시간이 약 절반은 음악이 차지했다. 종교 방송에서 나온 30만 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아티스트가 전체 곡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주요 아티스트 순위에 따르면 필 윌콕이 전체 재생곡의 2.4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머시미 2.13%, 매튜 웨스트 1.53%, 크리스 톨린 1.44%, 제레미 캠프 1.42%로 나타났다. 6~10위는 잭 윌리엄스(1.41%), 캐스팅 크라운즈(1.39%), 엘리베이션 워십(1.31%), 토비맥(1.23%), 브랜던 레이크(1.22%)였다.

종교 라디오와 정치의 결합도 눈에 띈다. 종교 방송국은 평균적으로 하루 2시간을 정치와 시사, 사회 문제에 할

애하고 있다. 하지만 청취자 중 단 14%만 뉴스 파악을 주요 청취 이유로 꼽았다. 정치와 뉴스 콘텐츠는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인터뷰나 진행자 의견 중심의 토크 형식이었다.

방송국별 편차도 컸다. 방송국의 3분의 1은 해당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 하루 30분 미만이었지만 일부 방송국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정치와 시사에 할애했다.

특히 정치 관련 콘텐츠 비중이 높은 방송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나 범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동성 커플이나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언급의 약 80%

는 부정적인 평가였으며 긍정적인 언급은 1% 미만에 불과했다. 반면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47%가 중립적, 40%가 긍정적, 13%가 부정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남부 지역에서 종교 방송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전체 방송국의 약 40%가 종교 방송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톨릭 방송은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가톨릭 인구가 많은 지역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가톨릭 방송은 음악 비중이 전체의 1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방송되는 음악 역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튜디오 음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또 모든 방송에서 복음서와 창세기, 시편 등 특정 성경 구절이 자주 언급됐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언급은 가톨릭 방송보다 가톨릭이 아닌 방송에서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예배 장소 주변 시위 금지’ 논란

종교 예배 장소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구치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591는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후 1시간까지 예배 장소 변경 500피트 안에서 방해로 간주되는 시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예배 장소 100피트 안에서 시위자가 신도에게 접근할 경우 최소 8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에서 명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타인의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Flipping 전문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은 20년 경력의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 주세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을 가장 매력적으로 디자인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 실제 사례 광고, 스탠포드 싱글홈

주방 주방 바퀴벌레있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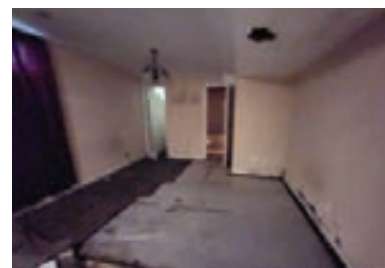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저분한 캐비닛제거후 주방 등 설치, 간단히 분위기를 바꿈.

지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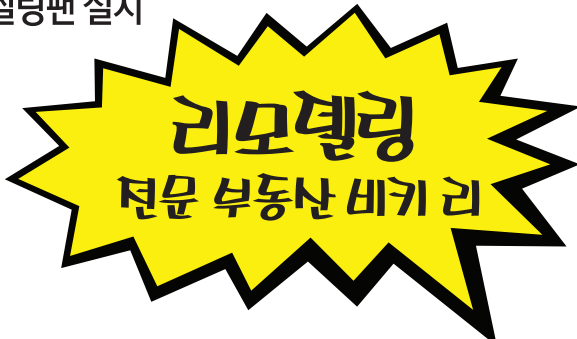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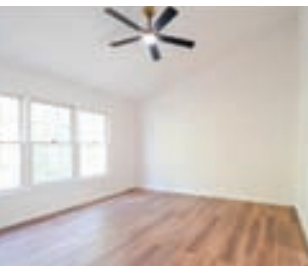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하 물난리난집, 지하 간이바, 밝은 천정등 설치.

안방 카펫에서 마루시공, 씰링팬 설치



목욕탕 넓은 샤워장설치, 그림같은 욕실



**바이어:** 어떠한 험한집도 사시면 깔끔하게 단장하여 드립니다.

**셀러:** 아무리 험한집도 이쁘게 수리하여 빨리 팔아 드립니다.

### 임대주택 관리 전문업체

임대면허취득, 임대 인스펙션, 납성분검사, 세입자와의 분쟁해결, HOA 위반사항 해결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한인타운 인접 USC 주택 '주목'



마셀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ADU 구조로 실거주와 임대 수익 동시에  
금리 부담 속 첫 집·투자 대안으로 관심

LA 한인타운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지역이다. 가족 중 한두 명은 직접 거주하고 있거나 여행을 통해 한 번쯤 방문해 본 경험이었을 정도다.

LA는 도시 규모가 워낙 넓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는 이민이나 취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정착지로 선택하는 도시 중 하나로 직장이 다양한 편이고 영

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비교적 많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병원, 마켓,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돼 있어 초기 적응이 수월한 편이다.

아파트 공급도 꾸준히 주거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장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인타운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면서 부동산 구입도 증가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은 여전히 복잡한 편이지만 큰길에서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전혀 다른 분위기의 주택가가 펼쳐진다.

최근 USC 인근 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토요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걸어 보았다. 아침부터 화단을 가꾸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고 낮은 소리를 흐르는 강아지들을 보며 동네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USC와 익스포지션 파크는 한인타운에서 약 4~5마일 남쪽에 위치해 있다. 한인타운과 생활권이 가깝고 한

국인 거주도 점차 늘고 있는 분위기다. 학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역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수요 역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요즘은 금리 부담과 함께 렌트비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단순 거주를 넘어 일정 부분 수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주택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살펴본 주택은 건평 약 1800제곱피트, 대지 약 6500제곱피트 규모로 현재 셀러가 거주 중이다. 앞집은 메인 하우스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이며 부엌에는 사이드 문이 있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환

용도가 높은 구조다. 뒤채에는 ADU가 있다. 앞으로 건물이 분리된 구조로 렌트를 낼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앞뜰과 뒤뜰이 넓고 방 크기만 한 대형 스토리지도 있어 다양한 용도의 수납이 가능하다. 가격은 100만 달러 미만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렌트를 할 경우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쌓여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집을 고민하는 바이어나 수익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단독 주택과 ADU 구조의 주택은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이야기

금리는 오르는데, 시장은 왜 움직일까



제니스박 콜콜드웰뱅크베스트부동산

이자 상승에도 봄 시즌 바이어 움직임 확대  
희소 매물 경쟁 속 타이밍보다 판단이 중요

최근 한 달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금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시장을 보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봄 시즌이 시작되면서 바이어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5%대 후반까지 내려가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제 경제의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6% 초반대로 올라왔다. 많은 바이어들이 다시 한번 “지금 사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많은 바이어들은 금리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집이 나오면 먼저 잡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좋은 매물이 사라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봄 시즌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 가족들도 많아진다. 아이들의 학교 일정 때문에 여름 전에 이사를 마치려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매년 3월부터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최근 만난 한 바이어는 “금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집을 몇 번 놓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금리는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지만, 좋은 집은 다시 나오

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금리는 언제든지 리파이낸스(refinance)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마음에 드는 위치와 조건의 집은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택 공급 부족이다. 가구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들도 금리가 낮은 기존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결국 현재 시장은 금리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 매물 수, 지역 경제, 그리고 바이어들의 심리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살아난다”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이 멈춘다”는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늘 사이클을 반복한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도 있고 올라가는 시기도 있다. 그 속에서도 집을 사야 하는 사람과 팔아야 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

시장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금리가 조금 변동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위치의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일지도 모른다. 부동산은 언제나 타이밍과 준비가 함께 맞아야 하는 시장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개입주의적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025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지만, 2026년 들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물리적 충돌이 맞물리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미국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미국 이외의 선진국과 일부 신흥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AI 기술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강한 상

승세가 성과를 견인해왔으나, 최근에는 AI에 대한 경계심 확산과 높은 기업 가치 평가 부담이 달러 약세 및 달러화 흐름과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외 선진국 주가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강한 자금 이동으로 뒷받침되며, 2025년 초 이후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비중도 약 25% 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장에서

알렉스 조이너의 마켓 나우

지정학 리스크 속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

전면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려는 ‘순환적 재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 외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2조1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 명목 성장률과 생산성의 우위, 그리고 AI 및 기술 혁신의 수혜를 고려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전략적 방향 선회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읽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외 선진국 시장 주식이 양호한 성과를 낼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상장 자산의 가치가 회복되면 전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사모자산 비중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인프라 등 사모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 여력을 제공

한다. 비상장 인프라는 이 같은 환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최근 주식과 채권 간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만으로는 변동성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 비상장 인프라 자산은 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에도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장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6년의 투자 환경은 지정학적 압력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동반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FM인베스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703.486.6082

<p><b>알링턴 싱글홈</b> \$2,099,000</p> <p>5bd, 6bt, 4275sf, 2026년 신축건물, RT-50 가까운 지역</p>	<p><b>메나사스 싱글홈</b> \$840,000</p> <p>Pending 5bd, 3.5bt, UVA PG 메디칼센터 주변</p>	<p><b>웨스트 스프링필드 타운홈</b> \$656,000</p> <p>Closed 4bd, 3.5bt, 2247sf, 하이스쿨 주변, \$26,000+ 로 판매</p>
<p><b>페어팩스 신축 콘도</b> \$664,000</p> <p>Under Contract 3bd, 2.5bt, 2481sf, 2026년 6월 완공 예정 웨스트필드지역</p>	<p><b>페어팩스 싱글홈</b> \$930,000</p> <p>Under Contract 4bd, 3bt, 3038sf, 우슨하이 도로거리 4일만에 계약됨</p>	<p><b>장미원</b> Associate Broker Licensed VA/DC/MD</p>

VA/DC Office (Vienna Tysons) 438 Maple Ave. E, Vienna, VA 22018  
MD Office (One Bethesda) 7373 Wisconsin Ave. #1700, Bethesda, MD 20814



# 경북의 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특판전

## WELCOME TO GYEONGBUK SALE EVENT

ENJOY OUR ANNUAL FESTIVAL OF GROCERIES FROM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APR. 10th - APR. 23rd, 2026



### Frozen Grilled Conger Eel Seasoning

냉동 바다장어 양념구이  
0.44 LB ~~\$14.99~~

# \$9.99

### NANGMAN Stir-fried Webfoot Octopus-Original

낭만 짬뽕미 오리지널  
10.58 OZ ~~\$9.99~~

# \$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유신고 '야수' 들이 제일 사납다

**수원 유신고 출신 삼총사 대활약**  
KT 이강민 3할2푼에 주전 유격수  
NC 신재인 구단 최연소 홈런 기록  
한화 오재원 개막전부터 줄곧 1번

“인젠가 프로에서 잘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1군 경기에 매일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원 유신고 야구부를 이끄는 홍석무 감독은 뿌듯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유신고 유니폼을 입고 뛰던 외야수 오재원(한화 이글스)과 내야수 신재인(NC 다이노스)·이강민(KT 위즈) 등 제자 세 명이 프로 입단 첫해부터 새 바람의 주인공으로 나란히 주목받고 있어서다.

홍 감독은 “오재원과 신재인은 1학년 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강민은 1학년 때 백업이었다가 2학년 때 주전으로 올라섰는데, 부족한 점을 알차게 보완해 3학년 때 훌쩍 성장했다”며 “재능을 알아보고 뽑아주는 프로 스카우트들과 필요한 자리에 잘 써주시는 프로 감독들께 감사드린다”고 흐뭇해 했다.

셋 다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신재인과 오재원은 올해 신인드래프트



유신고 홍석무 감독

1라운드에서 전체 2순위와 3순위 지명을 받았다. 이강민도 2라운드 전체 16위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같은 학교 동기생 야수가 2라운드 이내에 3명 이상 뽑힌 건 역대 두 번째다. 지난 1998년 광주일고 출신 최희섭(해태 타이거즈 1차 지명)·이현곤(해태 고졸 우선지명)·송원국(OB 베어스 1라운드) 이후 28년 만이고, 드래프트 전면 도입 이후엔 최적이다.

새내기 삼총사는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각자 의미 있는 기록도 세웠다. 이강민과 오재원은 지난해 28일 정규시즌 첫 경기에서 차례로 3안타를 쳐 역대 고졸 신인 개막전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함께 세웠다. 1996년 해태 장성호 이후 30년 만에 2-3호 기록이 나왔다.

신재인은 지난 1일 창원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18세 9개월 4일의 나이로 홈런을 때려내 NC 구단 역대 최연소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KBO리그 전체로 넓히면 역대 여섯 번째로 어린 나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한 학교에서 즉시전력감 기대주를 3명이나 한꺼번에 배출한 건 이례적이다. 유신고가 플래카드라도 내걸어야 할 것 같다”며 웃었다.

현재도 대단하지만, 미래가 더 기대된다. 셋 다 소속팀 주축 멤버로 나선다. 오재원은 한화 1번 타자와 주전 중견수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았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스타성을 갖췄다. 대선배들 옆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기야구를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강민은 내야 세대교체가 절실했던 KT에서 주전 유격수로 꾸준히 선발 출장하고 있다. 7일까지 타율(0.324)도 셋 중 가장 높다. 이강철 감독은 일찌감치 “올해 우리 팀 히트상품이 될 것”이라 장담했다. 신재인은 장타력이 돋보인다. 18타석에서 2개의 홈런을 때려내 거포 유격



KT 이강민



NC 신재인



한화 오재원

수의 싸움을 보였다. 이호준 NC 감독은 “(40홈런 유격수였던) 강정호를 떠올리게 한다. 최소 오지환(LG 트윈스) 정도는 성장할 것 같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초반 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 시즌이 끝날 때쯤 세 선수가 신인왕을 놓고 선의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유신고는 스타 플레이어를 여럿 배출했다. KBO리그 통산 홈런 1위 최정(SSG)과 두산 왕조의 주역인 외야수 정수빈이 이 학교 동문이다. 2020년 신인왕 소형준과 지난해 세이브왕 박영현(이상 KT), 리그 정상급

유격수 김주원(NC)도 유신고를 거쳐 프로 무대에 진출해 국가대표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홍 감독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밥 먹고 운동하고 수업 듣던 형들이 프로에서 펼칠 나이는 모습을 보는 게 지금(유신고)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고교야구 일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머지않아 재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뒤 프로야구 경기장을 방문해 선배들의 플레이를 직접 관전하는 그림도 관할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영은 기자

# 마침내 첫 골...찰각 대신 '더 떠들어봐' 세리머니

손흥민 북중미 컵대회 8강 선제골  
손 오르렀다 퍼며 ‘블라블라’ 외쳐

손흥민(34·사진)이 기나긴 골 침묵을 깬다. 올해 첫 필드 골을 터뜨린 직후 선보인 세리머니엔 ‘더 이상 내 득점력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소속 로스앤젤레스(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미국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루스 아술(멕시코)과의 2026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 챔피언스컵 8강 홈 1차전에서 선제 골을 뽑아내며 팀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경기 초반 상대 공세에 고전하던

LAFC는 손흥민의 역습 한 방으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전반 30분 마티의 슈아니에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손흥민이 슬라이딩하며 왼발로 밀어넣었다.

쇄도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2차례나 손으로 밀쳤지만 집중력을 유지하며 득점을 완성했다.

골을 넣은 직후 손흥민은 중계카메라를 향해 오른손을 오르렀다 퍼는 동작을 반복했다. 입으로는 “블라블라(Blah blah-어찌고저찌고)”를 외쳤다.

그러더니 강렬한 어퍼컷 동작으로 일순 분위기를 바꿨다. 자신에 대해 최근 일각에서 ‘에이징 커브(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더 떠들어봐, 나는 골로 증명할 테니’라는 메시지로

응수한 셈이다. 앞서 손흥민은 소속팀과 대표팀을 통틀어 11경기 연속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새 시즌 개막전이던 지난 2월 18일 페널티킥 득점 이후 두 달 가까이 골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 국가대표팀 유니폼으로 갈아 입고 치른 유럽 원정 A매치 평가전 2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치자 ‘기량 저하’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이 날아들었다. 당시 손흥민은 “이러다 소속팀에서 잘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5일 올랜도 시티와의 MLS 경기 전반에만 4개의 어시스트를 몰아치더니 이날 멋진 득점포까지 선보이며 건재를

알렸다. 시즌 초반 한동안 2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하던 손흥민은 최근 최전방 공격수로 보직을 바꾼 뒤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즌 성적은 2골 11도움이다.

손흥민의 득점과 함께 기세가 오른 LAFC는 전반 39분 손흥민의 패스가 상대 선수 맞고 굴절되자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잡아 추가 골로 연결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중계진은 경기 후 엔딩곡으로 이때진 드래곤스의 곡 ‘벨리버(Believer)’를 골랐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의 위대함을

노래한 곡이다. 상대팀 크루스 아술은 지난해 우승을 비롯해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7차례나 제패한 절대 강자다.

멕시코 국가대표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와 에리크 리라가 각각 미드필더와 스리백으로 선발 출전한 가운데, 손흥민이 특유의 공간 침투와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해 월드컵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손흥민과 LAFC는 오는 15일 원정 2차전을 치른다.

박린 기자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omething) goes well with (something else); 잘 어울리다

(Roger is at his desk working when Jim walks into his office wearing a very nice suit ~)

(라저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짐이 멋진 양복을 입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Roger: Wow! Look at you! You look snappy!  
라저: 와! 이게 누구야! 멋진데!

Jim: Thanks. It's a new suit.  
짐: 고마워. 새 양복이야.

Roger: What's the occasion?  
라저: 무슨 날이야?

Jim: I have a meeting later with administrators of a medical school.

짐: 이따가 의과대학 행정과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

Roger: Oh do they have foreign students who want to study English with us?

라저: 그 대학에 우리 학교에서 영어 배우려는 외국 학생들이 있는 거야?

Jim: Yes.  
짐: 응.

Roger: That's a nice tie. It goes well with your suit.  
라저: 넥타이 멋있네. 양복과 아주 잘 어울려.

Jim: Thanks.  
짐: 고마워.

Roger: It would be nice to get more students.  
라저: 학생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Jim: I know. I hope this meeting pays off.  
짐: 그럼. 오늘 자리가 성과가 있으면 좋겠어.

기억할만한 표현

- (one) looks snappy: 멋지다.

"You look snappy in that shirt." (그 양복 입으니 멋지다.)

- What's the occasion?: 무슨 날이야?

"You want to take me out to dinner? What's the occasion?"

(나한테 저녁을 사겠다고? 무슨 날이야?)

- (something) pays off: (무엇을 한) 보람이 있다. 성과가 나다.

"Exercising every day is paying off. I have more energy."

(매일 운동을 한 보람이 있어. 힘이 생겨.)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 초승달 모양의 노란 열매. 주산지는 열대지방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작물 가운데 하나이다 (3) 가족의 사료가 되는 풀이 자라고 있는 곳. 넓게 펼쳐진 푸른 ~에서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6) 두 물체를 이은 자리. 연통의 ~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라 (7) 최선책에 다음가는 방책 (9) 얼음 위에 다시 물이 얼어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얼음 (10) 우리 편 군대 (11)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12)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 연지로 짙는 붉은 점 (13) 어떤 일에서 가장 우선적인 자격을 가지는 순위 (15) 간장에다 쇠고기를 넣고 조린 반찬 (16) 좁은 나무오리나 대오리로 살을 대어 맞추어서 만든 창문 (17) 죽은 사람의 혼이 극락으로 가도록 하는 곳. 장례 후 바로 하는 것과 몇 년 후에 하는 것이 있다 (19) 쓰다 남아 작게 된 토막 (20) 기사를 쓰는 사람 (21)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김 (22) 지붕을 일 때 기와처럼 쓰는 얇은 돌 조각이나 나뭇조각 (23) 실 오라기를 꼬아 기름이나 밀을 묻혀 초 대신으로 불을 켜는 물건 (25) 매달린 얼음 (27) 아주 많은 돈이나 값어치. ~을 준대도 나는

그 일은 못하겠다 (28) 슬며시 꺼어드는 행위

세로열쇠

(1)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배낭의 변형말 (2) 연륜 (3) 아직 굴레를 씌우지 않고 목을 고삐로 맨 망아지 (4) 다음이나 버금. 만이 이외의 자식들 (5) 쇠로 만든 울타리 (8) 먼저 와 닿는 차례 (9)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 (11) 말의 새끼 (12) 예전에,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벌 (13)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낸 미단아. 달님은 ~으로/은구슬 금구슬을/보내는 이 한밤 (14)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 (15) 개나 돼지가 과식을 해서 생기는 병 (16) 그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리 선반 (18)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에서 하는 말이나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라 (19)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20) 전통 한옥이나 절의 지붕에 덮여 있죠 (22) 넉살 좋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 일을 주선하는 솜씨. 그녀는 남편 못지않게 ~가 좋아 동네 반장을 맡아 한다 (23) 임금의 얼굴 (24) 매우 환함 (26) 장군 명군 하며 서로 겨루죠

스도쿠

		5		9			6	7
			6	4			1	8
6	8				5			2
	6	2	1	3				
					9		4	
	9					8		6
	4	8	9		6	7		1
		1			7		3	
7				5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8	2	1	5	3	9	7	6
6	3	9	7	8	4	1	2	5
1	5	7	9	2	6	8	4	3
9	2	8	4	7	5	3	6	1
3	4	1	6	9	2	7	5	8
5	7	6	8	3	1	2	9	4
2	6	3	5	1	7	4	8	9
8	1	5	2	4	9	6	3	7
7	9	4	3	6	8	5	1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봄맞이 특별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세라젬!! 디자인 아 성능도 아 기쁨 더~더욱 아

## 세라젬 CERAGEM V7

일상 회복의 새로운 기준

세라젬의 시그니처적 특징인 7축의 독립된 차축

3가지 컬러 옵션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에 맞게 선택하세요

- 베이지
- 블랙
- 카멜레온

CERAGEM FDA

## CERAGEM V7

무어함과 힐링의 만남

스마트 스텝: 스마트 힐링을 위한 7축의 독립된 차축이 7가지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줍니다.

특-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스마트 힐링을 위한 7축의 독립된 차축이 7가지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줍니다.

완벽 케어: 스마트 힐링을 위한 7축의 독립된 차축이 7가지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줍니다.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당신의 공간을 품어 있게 완성하세요

www.ceragemusa.com

## 풀무원 김치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 아침을 담는 빠른 솔루션

###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JONE KIMCHI FRIDGE 120L

~~\$1,399~~ **\$999**

스PECIAL OFFER

간편하게 맛있게 풀무원 인버터 풀링시스템

일일매매 따라 다양하게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340~~ **\$300**

SPECIAL OFFER 싱글

##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특가 세일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월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중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 열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한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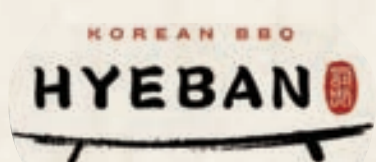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주방 쿡 / 헬퍼  
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

4월 구인광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 청빙공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십니다.

- 유스그룹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사역 소명 있는 분
-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 소명 있는 분

합법 체류자로 사진 첨부 이력서 stmkumc@gmail.com으로 4월 15일까지 송부바랍니다.

### 운전기사님 모십니다

본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주실 운전기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모집분야: 운전기사 1명
- 주요사역: 교회차량운행(15인승)
- 사역내용: 한달 4~5회(매 주일 예배 전후)
- 자격요건: 취업 결격사유 없는 운전면허소유자
- 사례: 월 \$800.00
- 접수방법: 이메일 wbs7540@gmail.com (운전면허증사본, 5년간 운전기록)
- 접수마감: 4월 15일 5:00 pm

### 알링턴한인교회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 SD Mechanical

### 테크니션 직원 모집

저희 회사는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회사로 냉장·냉동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office@gmail.com

\* 지원 방법은 이메일이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 WBS

###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 HYUNS HOMECARE

###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한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 메디케어

###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

###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정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 기타 구인

한식당 해반(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치리스(숙식제공)  
Tel: 443-420-3096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문의: 703-447-4683  
E-mail: Sdmech.office@gmail.com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치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글렌버니 리커스트어에서 함께 일하실분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 중고 매매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물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오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차고지 MD  
201-681-4470

###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료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오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크노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버지니아

### 구인/사무/직원모집

이민법 사무실, 1-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력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알링턴 한인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유스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부 사역소  
명있으신분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소 명  
있으신분  
-> 합법체류자, 사진 첨부 이력서 이메일  
stmkumc@gmail.com로 4/15일까지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알링턴 한인교회에서 운전기사님 모집합니다.  
-운전기사 1명  
-주요사역: 교회 차량 운행 (15인승)  
한달 4-5회 (매 주일 예배 전후)  
-자격요건: 취업에 결정사유 없는 운전면허  
소유자 (운전면허증사본, 5년간 운전기록)  
-사례: 월 \$800  
-> wbs7540@gmail.com 4/15일까지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파울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력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시지터,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 NO.1

###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타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중앙일보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종언 어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종언 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패어팩스 일식당에서 주말 파티임  
스시맨 구함 시간 \$30  
703-628-9168 (문자 요망)

RT-1관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443-618-7141 (문자)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관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함.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헬퍼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 정육부 매니저 1명,  
-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버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타임  
▶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 세탁/엘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엘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 기타 구인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메케닉  
▶ 703-220-1400

애견 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  
▶ 571-660-8182

InCourage Martial Arts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 싱글/타운홈 렌트

1. 센터빌 롯데, 마트 근처 2 Car garage  
타운홈 렌트, 방3, 화4 \$3,500  
2. 센터빌 롯데, 마트 근처 1 Car garage  
타운홈 렌트, 방3, 화4 \$3,000  
240-271-1879

패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  
이트한 부엌 (그라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 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 다수, 교통 편리  
▶ 703-477-3114

##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 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 방 렌트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  
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  
분 환영, 주차 넉넉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1-95 1마일 거리, 가  
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조지메이슨 근처 조용한 싱글 하우스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  
240-271-1879

애난데일 K마켓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 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방 임대 \$700 (유포)  
문의 :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티 포함, 출입  
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뒷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방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  
잠만 주실분  
703-732-1246

첼트리 롯데마트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 하  
우스 방세 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사무실/점포 렌트

워싱턴 DC 중심가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1. 첼트리 하이 싱글 \$1,299,000  
방4, 화3.5, 차고2, 큰덕, 락키런 미들, 포플  
라트리 초 (최고 학교)  
2. 헌튼 콘도 \$590,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 케이스트 콘도 \$390,000  
방2, 화2, 콜린 파워 초, 센터빌 고  
▶ 571-239-6054

1. Mclean 싱글하우스 \$2,790,000  
방7, 화6.5, 5년 된 집, 주인의 사랑으로 잘 관  
리된 집,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2. Vienna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코너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3. Annandale 싱글 하우스 \$700,000  
위치 좋은 애난데일, As-is Condition  
▶ 703-625-9909

1. 폴스처치 콘도 \$210,000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렉서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3월 15일까지 10% 글루밍 네일 및 액세서리 선물 등영!!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 클립톤 콘도 \$385,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진 단지, 방2, 화장, 완전 히 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알링턴 싱글홈 \$1,600,000  
방4, 화장, 3,056sf, 2000년도에 지은 집  
2. 찬틀리 싱글홈 \$1,089,000  
방4, 화장, 3,423sf, RT-50 사우스라이딩 경계선  
3. 페어팩스 싱글홈 \$890,000  
방4, 화장, 3,303sf, 우순하이스쿨 도보거리, 집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장+Den, 굿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맥,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 타운 \$680,000  
방4, 화장, 2.5, 차고2, End Unit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장, 3.5, 차고2  
4.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장, 2.5, 차고1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장, 3.5, 차고2, 집전체 마루, 교통과 학교 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장, 3.5, 1250sf  
3. 찬틀리 타운홈 \$700,000  
방3, 화장, 2.5, 차고2, 3레벨 모두 법피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4. 센터빌 타운홈 \$700,000  
방3, 화장, 2.5 차고2  
▶703-231-5572

1. 페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장, 차고2, 2018년, 로빈슨 하이스쿨 좋은 위치에 전반적으로 수리된 고급 집  
2. 페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3. 비엔나 싱글홈 \$1,100,000  
방3, 화장실 3+1, 차고1, 1999년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4. 센터빌 타운홈 \$873,000  
방3, 화장, 3+2, 차고2, 2022년 거의 새 집 같은 이쁜 집, 웨스트필드 하이스쿨  
▶703-899-899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트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헝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장, 3.5, 차고2, 지하올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빅토리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콧시타이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 사업체 매매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타포드) 옷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시타이싱글홈 파실본, 바이어대기중!  
4. Tysons 차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쿠폰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페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쿠폰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쿼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펄프 공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보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중고 매매 / 기타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텐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비속권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낄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약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자봉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맡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덱,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 Out), 덱 페인팅, 난방과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어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방법:  
E-mail: Sdme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터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승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닝  
▶301-572-2786 / 403-953-0801

##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딩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 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벽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방지/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자 및 설치 (키친후드, 덱)  
▶301-222-3277

H.P. C 집수리 센터  
집안벽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 JGL Construction Inc.

###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틈트

##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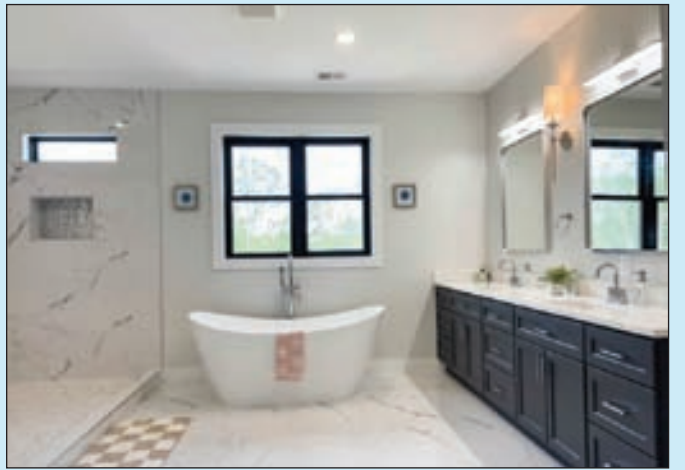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알래스카지역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알래스카 일식당**  
하루매상 \$3,000  
매매가 \$20만  
(408)497-1540  
메세지주시면 연락드림

**한식 주방장 및 육부**  
-고기 잘 다루시는 분  
테메쿨라지역  
숙소제공해드립니다  
코리아안BBQ (951)813-0709

**한식 쿡 구함 웨이트리스구함**  
알래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알래스카 호텔매매**  
Bethel지역, 13룸  
큰 투자하지 않고  
돈 벌수있는  
절호의 기회~  
(907)545-0326

**덴탈랩매매**  
년매상 \$120만  
주인은퇴매매  
클룸버스 오하이오주  
문의 이메일 바람  
accutech614@gmail.com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출**  
작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통배 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클 터치 (213)675-6877**

구인·주택 사업체 매매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HELLOKOTOWN.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GLOBAL MBA 2026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17 - APRIL 21

Application SUBMIT ONLINE

+82-2-2123-3254 gmba.admissions.ysb@yonsei.ac.kr mba.yonsei.ac.kr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TEL: 213-272-6031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장5,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안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독점 Clifton 콘도**

호수를 품고있는 멋진 단지, 방2, 화장2, 완전히 업데이트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385,000**



**독점 Falls Church 콘도**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넓은 창문, 전대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10,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타운홈, 1,2,3층 구조, 리노베이트한 부엌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SS Appliances), 새로 꾸민 화장실들, 방3, 화장2, 밝고 환한 집

**\$44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